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40~50대 여성들의 미백관리 행태에 관한
만족도 실태조사 연구

- 서울 강북 지역 중심으로 -



HANSUNG
UNIVERSITY

2010年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뷰티藝術學科

뷰티에스테틱 專攻

黃 貞 美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金玟妍

40~50대 여성들의 미백관리 행태에 관한 만족도 실태조사 연구

- 서울 강북 지역 중심으로 -

A study on satisfaction of female in their
40s and 50s with whitening care behavior.

- centering around seoul gangbuk area -

2009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뷰티藝術學科

뷰티에스테틱 專攻

黃 貞 美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金玟妍

40~50대 여성들의 미백관리 행태에 관한 만족도 실태조사 연구

- 서울 강북 지역 중심으로 -

A study on satisfaction of female in their
40s and 50s with whitening care behavior.

- centering around seoul gangbuk area -

위 論文을 藝術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9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뷰티藝術學科

뷰티에스테틱 專攻

黃 貞 美

黃貞美의 藝術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09年 12月 日



HANSUNG
UNIVERSITY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2
II. 이론적 배경	4
1. 피부미용	4
1) 자외선과 피부	4
2) 피부의 구조와 기능	6
3) 피부색소 침착	7
2. 마사지 정의와 효과	8
1) 마사지의 정의	8
2) 마사지의 기본원리	8
3. 피부 미백 관리	9
1) 필링(peeling)방법과 사후 관리	9
2) 스트레스와 피부	10
3) 피부 미백관리 성분	10
4. 메디칼 스킨케어	11
1) 필링의 개요	11
2) 필링의 종류	12
III. 연구 방법	15
1. 연구대상	15

2. 조사도구	15
3. 연구절차	16
4. 자료 처리 및 분석	16
 IV. 연구결과	 17
 V. 고찰	 54
 VI . 결론 및 제언	 56
 참고문헌	 58
 부록	 62
 ABSTRACT	 67

【표 목 차】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18
<표 2> 조사대상자의 생활습관 특성	20
<표 3> 미백관리 이용 기간	22
<표 4> 미백관리 장소	23
<표 5> 미백관리 장소 선택이유	25
<표 6> 관리 위해 주로 사용하는 것	26
<표 7> 미백관리 효과 만족도	27
<표 8> 현재 이용하는 미백관리 지속의향	28
<표 9> 향후 미백관리위해 이용하고 싶은 장소	29
<표 10> 미백관리를 위한 한달 지출비용	30
<표 11> 피부관리실에서 관리 받는 횟수	31
<표 12> 피부관리실에서 받아본 경험 없는 이유	32
<표 13> 현재 사용하는 기초화장품 종류	34
<표 14> 사용하는 화장품	35
<표 15> 미백기능성 화장품 사용기간	37
<표 16> 미백화장품 만족도	38
<표 17> 주로 사용하는 미백라인	39
<표 18> 자외선차단제 사용여부	40
<표 19> BB크림 사용여부	41
<표 20> 미백화장품 살경우 중요시하는 부분	42
<표 21> 화장품 라인중 추가 사용하고 싶은 제품종류	43
<표 22> 시술받은 스킨케어 종류	45
<표 23> 치료효과 나타난 시술 회기	46
<표 24> 시술 기간 중 반응	47
<표 25> 향후 메디컬 스킨케어 이용여부	48

<표 26> 시술도중 효과가 없을 것 같아 걱정되는 정도	50
<표 27> 메디컬 스킨케어 결과 만족도	51
<표 28> 주변 사람들에게 메디컬 스킨케어 시술 원하는 정도	52
<표 29> 메디컬 스킨케어 시술비용 대비 효과의 만족도	53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직장생활을 비롯한 사회활동은 매우 활발해졌고 그 범위도 다양하다. 그 중 각종 취미 및 스포츠가 같은 사람들의 모임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야외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자외선에 노출되는 시간도 많아졌다. 빠르게 이동해야 하는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경제력은 자가운전자의 양적 증대를 가져왔고 운전을 하여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는 햇빛으로 인한 피부손상도 많아졌다. 더불어 산업화된 현대사회의 환경오염으로 지표면에 도달하는 자외선 양이 증가하고 서구화된 식생활 및 과도한 스트레스는 이러한 피부손상에 자극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아름다움이란 건강의 극치를 의미하기도 한다면, 맑고 깨끗한 피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 깨끗한 피부는 미(美)의 일차적 기준이 되어버렸고 대부분의 여성들은 화장품의 광고 문구처럼 “산소 같은 피부”나 “생얼”이라는 말을 듣는 것은 하나의 소망이고 피부의 미백(美白)을 위한 관리는 중요한 관심사이다.

적극적인 피부의 미백관리는 잡티나 주근깨, 기미 등의 색소성 병변에 화학적 필링, IPL을 포함한 레이저치료, 약물치료 등이 선행하고 시술 후 피부관리 및 홈케어를 병행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정종영, 2006: p316). 보통의 경우 피부관리라 함은 피부를 예방 차원에서, 건강하고 맑은 피부유지를 위한 관리 및 심리적 이완, 생리적 활성을 위한 관리를 의미한다.

메디칼 스킨케어(Medical skincare)은 기미, 검버섯, 잡티 등의 색소 침착이나 심각한 여드름, 아토피, 혈관성 피부질환 등 전문적 피부 관리가 필요한 사람을 위한 피부과적 치료이지만, 정상적인 사람에게도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정은진, 2006: p.1).

많은 여성들이 홈케어(Home care)로써 미백관리의 대표적 방법으로 미백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이다. 미백화장품의 유효성분은 피부의 과도한 멜라닌 색소침착을 방지하거나, 기존에 침착된 멜라닌 색소의 색을 얇게하여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준다(고영수, 2004: p.15)

40~50대 여성들의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스트레스, 화장품, 자외선 및 식습관, 수면, 흡연, 적절한 피부 관리 등이다(이종신, 2006: p.1). 노화가 진행되면서 피부의 재생력이 떨어져 중년 여성의 피부는 자외선에 더욱 민감해지고 그로인한 색소침착도 심해진다(김영미, 2005: p.106).

본 연구는 현대사회에서 중년여성의 사회적 활동 증가에 따른 미적 관리는 날로 증가됨을 볼 때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미백관리 행위태도에 따른 효과를 정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피부 미백관리를 하기위해 행위별 유형은 피부과 병원의 이용, 피부 관리실의 이용, 미백 화장품의 사용 등의 3가지 유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각각의 유형을 경험한 40~50대 여성들의 미백관리 행태에 관한 만족도 실태를 조사하여 유형별 선택원인과 효과, 만족도가 어떠한지 비교 분석하여 개선점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문제

이 연구의 목적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 조사하여 40~50대 여성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관련하여 평소 피부의 미백관리를 위한 행태와 선택의 이유, 관리의 결과 및 만족도를 알아보고 일반적 견해를 비교 분석하여 효율적인 피부 미백관리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특성에 대해 알아본다.

연구문제 2

일반 피부관리실 이용 경험과 효과 및 만족도에 관하여 알아본다.

연구문제 3

미백화장품 이용 경험과 효과 및 만족도에 관하여 알아본다.

연구문제 4

메디칼 스킨케어실 이용 경험과 효과 및 만족도에 관하여 알아본다.



II. 이론적 배경

1. 피부미용

1) 자외선과 피부

(1) 자외선이란

지상에 도달하는 태양광선은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시광선은 400~700nm 파장의 광선으로 큰 생물학적 의의는 없으며, 적외선은 70nm이상의 파장을 가지는 광선으로 열선이라고도 한다. 자외선은 200~400nm의 파장을 가지며 사람 피부에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친다. 자외선A(320~400nm)는 피부의 색소침착(色素沈着)을 유도하는 색소침착성 광선이다. 광과민성 피부질환들은 자외선A에 의해 새로 생기거나 악화된다. 자외선B(280~320nm)는 피부의 홍반을 주로 유도하는 광선으로 일광화상의 주범이며, 주근깨 혹은 기미를 유발시키거나 악화시킨다. 자외선C(200~280nm)는 살균작용과 피부암 유발에 관계되는 광선이다. 요즘 산업공해로 오존층이 소실되어 자외선C가 지상에 많이 조사되어 피부암 및 여러 가지 생태계의 변화를 초래한다(강원형, 2006: p.195).

(2) 일광과 피부

자외선은 우리 인체에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미치지만 좋은점도 있다. 피부가 자외선에 노출되면 아래의 반응을 보인다. 태양광선 중에서 지구상에 도달하는 자외선A의 양은 자외선B의 양보다 20배가 많으나 홍반은 자외선B가 자외선A보다 1,000배나 더 잘 유발한다(강원형, 2006: p.195). 자외선은 피부에 있는 단백질 핵산 등에 의해 흡수되며

광화학적 작용을 일으켜 홍반형성, 색소침착, 상피형성, 살균효과, 비타민 D합성, 신경호르몬 분비효과 등을 유발시킨다(김기연, 2001: p.141)

(3) 일광차단제의 종류

자외선의 작용은 흡수, 반사 및 산란에 의하여 방지될 수 있다. 화학적 일광차단제는 UV-B를 흡수하는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UV-A를 차단하는 물질이 첨가된 제품도 많다.

화학적 일광차단제는 피부나 눈에 자극성이 없어야하며, 물리적 일광차단제는 자외선 A와B 그리고 가시광선의 차단효과가 우수하고 접촉성 피부염 같은 부작용이 없다.

일광차단지수(Sun protection factor,SPF)는 일광 차단제의 자외선B 차단 능력을 표시하는 지표로서 일광차단제를 바른 피부의 UV-B MED를 일광 차단제를 바르지 않은 피부의 UV-B MED로 나눈 값을 숫자로 표시한 것이다. 자외선 A의 차단 정도는 UV-A protection factor(APF)로 표시된다(정종영, 2006: p.198).

(4)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

피부건조와 주름, 노인성흑자(senile lentigines), 광선각화증(solar keratoses), 탄력성 소실, 모세혈관 확장, 반상출혈이 있고, 색소침착은 아래의 두가지 기전에 의하여 피부에 색소침착이 온다.

①체질적인 (constitutive):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고유의 피부색

②선천적인 (facultative): 자외선 등의 외부 자극에 의해 변하는 피부색(강원형, 2006: p.195).

자외선은 색소성 피부질환에 중요한 악화요인이 된다. 이는 표피의 아래쪽에 위치한 멜라닌 세포가 자외선을 많이 쬐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멜라닌 색소를 더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햇빛을 많이 쬐면 표피와 진피에 멜라닌 색소들이 많이 만들어져 증상이 더 심해지게 된다

(이수근, 2007: p.90).

멜라닌세포(melanocyte)는 신경능선(neural crest)에서 유래하며 형태상 다수의 가지돌기(dendrite)를 갖는 세포이다. 피부에 있는 멜라닌에는 2가지 종류가 있으며 그 중 하나는 피부나 모발의 갈색 또는 검은색의 근원이 되는 eumelanin과 그 변형인 oxymelanin이고 다른 하나는 모발에 황색내지 적갈색의 옅은 색조를 주는 pheomelanin과 그 변형인 trichochrome 으로 분류된다(대한피부과학회, 2008: p.12).

2) 피부의 구조와 기능

피부는 신체의 표면을 둘러싸고 있어 외부로부터 물리, 화학적 영향을 받고 있다. 일광, 온도, 습기, 먼지 등 늘 피부와 끊임없이 접촉하고 있는 외적요인들이 피부에 영향을 주고 있다. 피부(Skin)는 성인의 경우 총 면적은 약 1.6-1.8m²이며, 바깥쪽으로부터 표피(Epidermis), 진피(Dermis), 피하조직(Subcutaneous tissue)으로 구성되어 있고 표피구성은 각질층, 투명층, 과립층, 유극층, 기저층으로 되어 있고 구성세포에는 각질형성세포, 멜라닌세포, 랑게르한스세포, 머켈세포가 있다. 진피에는 유두층과 망상층으로 구분되고(하병조, 2002: p.21). 피부는 끊임없이 재생하는 조직이다. 각질층의 낮은 투과성과 물리적인 장벽기능은 인체를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피부 장벽(Skin barrier)은 표피의 각질층(stratum corneum)이 담당한다(이승현, 2004: p.1).

피부의 가장 바깥에 위치한 각질층은 약 40%의 단백질, 40%의 수분 그리고 10~20%의 지질로 구성되는데, 그 구조는 단백질이 풍부한 각질세포(corneocyte)와 지질로 이루어지며, 지질을 이루고 있는 성분 및 함량의 변화에 따라 피부의 경피수분손실(Trans epidermal water loss) 및 표피의 수분 함량은 변하게 된다. 이로 인해 건조증이 유발되고 아토피피부염을 악화시키거나 자외선에 노출시 색소침착 등의 악영향을 준다.

3) 피부색소침착

멜라닌은 색소로서 피부, 모구, 눈의 망막, 뇌막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멜라닌의 생성요인은 피부에서 멜라닌이 만들어지는 곳은 멜라닌 생성세포로서 표피와 진피의 경계선상의 기저세포들 사이에 있다. 이 생성세포는 신경절에서 유래하는 세포로서 멜라닌 형성은 정신적인 여러인자와도 연관성이 있다. 멜라닌 형성 자극호르몬 (MSH, Melanocyte Stimulating Hormon)은 색소세포의 수는 인종에 따라 별반 차이는 없는데 티로시나아제(Tyrosinase)의 활성정도에 따라 백인과 흑인의 피부색이 결정된다(김기연, 2001: p.163).

피부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양하다. 대표적인 것이 멜라닌 세포, 혈관 분포와 혈색소, 카로텐 색소 등이 있다. 피부가 붉은 것은 혈관이 확장된 경우나 혈관의 분포가 많은 경우이다. 청색증과 간이 혈색소가 산소와 충분히 결합을 하지 못한 경우 푸른빛이 돈다. 또 굴을 많이 먹었을 때 카로텐이란 색소가 피부에 많아지면 피부가 노란색을 띠는 경우가 있다(이상주, 2009: p.417). 장기적인 자외선 노출에 의해 나타나는 광노화(Photoaging)는 오랜 시간 동안 자외선에 노출되는 얼굴이나 팔 부위의 피부는 깊은 주름과 색소 탈색과 침착, 건조피부, 탄력성 감소 등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이승현, 2004: p.99).

기미가 생기는 원인으로는 월경이나 임신과 관련되어있는 여성호르몬인 황체호르몬(Progesterone)의 분비 상승이나 난포호르몬(Estrogen)과의 균형 붕괴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멜라닌색소의 생성이 높아지는 이유 때문이다. 임신 시나 폐경기에 많이 생성, 임신성 기미라고도 한다.

그 외 원인으로는 뇌하수체 중엽에서 분비되는 MSH의 양이 증가되어 멜라노사이트에 직접 작용한다(이영아, 2009: p.150).

2. 마사지 정의와 효과

1) 마사지의 정의

마사지(Massage)는 주로 손을 사용하여 직접 피부에 물리적인 자극을 줌으로써 원하는 생리적인 반응을 얻는 방법으로 부위에 따라 안면마사지, 두피마사지, 전신마사지 등이 있다(김영미, 2005: p.311). 마사지를 시행할 때 매개체로 신체에 기름이나 향유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성경과 코란에 기록 되어있다(한영숙, 2008: p.91). 마사지에 대한 정의는 기원전부터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 있으나, 1886년의 의학사전에 ‘마사지는 그리스에서 시작되었으며, 근육을 주무르는 것을 뜻한다. 마사지의 어원은 프랑스어이나 원래 아라비아의 ‘누르다’와 그리스어의 ‘주무르다’, 히브리어의 도수교정(Manipulation)에서 기인된 것이며, 쓰다듬는 것을 ‘Effleurage’, 주무르는 것을 ‘Petrissage’, 두드리는 것을 ‘Tapotement’, 비벼 문지르는 것은 ‘Friction’, 흔드는 것을, ‘Vibration’이라 한다(전제균, 2003: p.11).

피부미용(Esthetics)이라는 명칭은 약 200년 전 독일의 미학자 바움갈텐(Baumgarten)이 “미(美)는 인간에게 만족과 즐거움을 주는 대상이며 보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다.” 라는 감성의 미에 대한 의미로 처음 사용하였다(강수경, 2002: p.31).

2) 마사지의 기본원리

일반적인 마사지의 기본원리는 근육, 결합조직, 신경조직, 혈관조직, 림프조직과 같은 연조직에 물리적인 압력이나 움직임을 가하여 원하는 생리적인 효과를 거두는 것이다. 마사지를 하면 작은 소동맥의 확장과 혈류를 증가시키고 림프의 순환을 촉진한다. 마사지를 위한 절차 중 스팀을 피부에 접촉시키면 피부의 온도와 수분이 증가하고, 미용시술 효과를 증진시켜 피지와 노폐물을 닦아내는 효과도 있다. 마사지 후의 절

차로써 껍은 피부를 외부의 공기와 차단하여 피부표면을 윤택하게 한다. 피부의 혈액 순환 촉진 여러 가지 물질의 경피투과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이상주, 2009: p.311). 죽은 각질세포를 제거해주어 피지덩어리, 먼포, 여드름 및 모낭내 불순물을 제거 후 영양물질의 흡수를 용이하게 하여 피부재생을 위한 조건을 제공해 준다. 물리적 필링형태는 문질러줌으로써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혈색을 좋게 해준다(김명숙, 2009: p.187).

3. 피부미백관리

기능성 화장품이라함은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를 곱게 태우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들이 이에 속한다(대한민국 화장품법 제2조1항). 그중 미백제란 피부의 멜라닌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맑고 투명한 피부색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를 위해 멜라닌 생성에 관여하는 티로시나제의 저해물질이 널리 쓰이고 있다(하병조, 2002: p.105).

1) 필링(Peeling)방법과 사후 관리

‘껍질을 벗긴다’는 뜻의 필링(Peeling)은 피부 표면에 쌓여있는 각질을 화학적인 방법과, 물리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없애주는 것을 말한다. 필링은 피부표면의 죽은 세포를 제거함으로써 피부를 건강하고 매끈하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물리적인 필링은 피부표면의 각질을 스크럽 크림이나 솔 등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김영미, 2005: p.310). 화학적인 필링이란 A.H.A를 이용한 필링과 페놀과 레틴산을 이용한 필링이 있다(허순득, 2009: p.162). 이들 성분들은 필링효과가 매우 탁월하지만 필링 이후에 매우 까다로운 관리가 뒤따르게된다. 필링 이후 철저한 자외선 차단이 뒤따르지 않으면 피부를 심각하게 훼손

손할 위험이 있다. 최근에는 TCA나 과산화 벤조일, 페놀, 레티노이드 등과 같은 화학 필링제를 대체할 수 있는 우수한 필링제로 A.H.A(Alpha hydroxy acids)가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김영미, 2005: p.320).

2) 스트레스와 피부

스트레스(Stress)도 기미 촉진 원인이 될 수가 있다. 색소세포는 신경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신경면에서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되면 기미가 생기기 쉽다. 기미는 지나치게 신경 쓰거나 정신적으로 초조한 상태가 계속되면 기미도 악화된다(이영아, 2009: p151).

민감한 신경계의 증상에는 혈액 내 특정 스트레스 호르몬 증가와 빨라진 맥박 높아진 혈압, 가슴이나 위가 조이는 느낌, 머리가 어절한 느낌과 땀이 나고 손이 따끔거리고 차갑거나 땀이 난다(문종원, 2009: p.24).

3) 피부미백관리 성분

(1) 알부틴: 일본에서 화장품회사 ‘시세이도’ 개발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미백제중 하나이다. 또한 우리나라 식약청에서도 승인한 미백제중 하나이며 알부틴은 비타민 C와 함께 사용하면 미백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것은 주근깨와 기미의 원인이 되는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는 효소로서 티로시나아제에 작용해 멜라닌 색소의 생산을 강력하게 억제한다(고영수, 2002: p.273).

(2) 플라센타: 티로시나아제에 의한 티로신 멜라닌 및 도파 멜라닌반응을 검압계를 이용하여 산소흡수를 측정하고 멜라닌 형성 반응을 조

사한바 플라센타 리퀴드 혹은 에센스는 멜라닌 형성을 확연하게 저해하고 색소침착에도 효과 있다.

(3) 감초추출물: 뿌리와 줄기에서 글리치시린을 추출한다. 티로시나아제의 작용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 멜라닌 합성을 방해하는 효능을 가졌다. 색소제거제로는 코직산이나 비타민 C보다 매우 큰 효능이 있음이 밝혀졌다.

(4) 레몬추출물: 비타민C와 구연산을 함유하고 있어 알란토인과 섞어 피부미백제의 제품으로 생산하는데 이용된다(김기연, 2001: p.175).

(5) 비타민 C: 광선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시켜 멜라닌색소의 생성을 억제하므로 과색소 침착 피부에 상당히 유용한 성분이다. 비타민 C를 국소적으로 사용한 결과 UV-A와 UV-B에 의한 손상이 억제 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선 스크린 화학물질과 결합을 시킬 경우에 지속적 효과가 있으므로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 콜라겐 생합성 조절제로 작용하여 피부미백효과를 이끌어 낸다(고영수, 2002: p.273).

(6) 코직산: 술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누룩을 취급하는 사람들의 손이 일반인에 비해 희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개발된 것으로 누룩곰팡이의 발효액에서 얻어지며 누룩산이라고도 한다(이상주, 2009: p.475).

4. 메디칼 스킨케어

1) 필링의 개요

필링은 특수한 기구나 약물을 이용하여 피부를 인위적으로 벗겨내

는 기술이다. 화학박피술, 기계적박피술, 레이저박피술 등으로 구분하는데 기계적박피술은 기계를 이용하여 피부의 얇은층을 벗겨내는 미세박피술을 말한다. 레이저박피술은 울트라퍼스형 CO₂ laser나 Eriyag 레이저를 이용하여 피부의 탈락을 유발하는 기술이다(정중영, 2007: p.135). 화학박피술은 화학적 약물을 이용하는 것이며 얇은필링의 경우 0.06mm(유두진피)까지 괴사되고 재생된다. 약물은 Combes (jessner's)solution, TCA(10-25%)이다. 중간필링의 경우 0.45-0.60mm(상부 망상진피)까지 괴사되고 재생된다. 가장 흔히 쓰이는 SIRAF은 50%-TCA, 콤스액+35%-TCA, 88% phenol (full strength)이다. 깊은 필링의 경우 0.61-0.80mm(중부망상진피)까지 괴사되고 재생된다(강원형, 2006: p.274).

2) 필링의 종류

(1) 바이탈 스케일링 (Vital scaling)

기미와 잡티, 칙칙한 피부에 바이탈 이온트 요법과 스케일링을 접목하여 기미, 잡티 생성을 지속적으로 억제 시키고 콜라겐 형성을 촉진하여 잔주름 제거에 효과적이다.

(2) 크로스 필링 (Cross peeling)

파여 있는 흉터나 넓어진 모공에 TCA라는 화학물질을 집어넣어서 진피 내에 있는 섬유아세포들을 자극하여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합성을 증가시켜 새 살이 만들어져서 점차 차올라 넓어진 모공이나 흉터를 메워주는 '화학적 흉터 복원술'이다.

(3) 블루필 (Blue peel)

블루필은 화학적 박피술의 한 종류로서 TCA란 화학 물질을 이용하여 노화된 피부나 손상 받은 피부의 일부분을 제거한다.

(4) 레이저 필링 (Laser peeling)

레이저를 이용하여 얼굴 피부 표면을 깎아내는 시술로 주로 흉터와 주름 제거를 위한 목적으로 시술 한다. 피부의 탄력성을 유지하는 물질인 콜라겐과 탄력섬유 생성을 유도하여 피부 재생을 촉진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5) IPL (Intense pulsed light)

레이저는 단일 파장의 빛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특정 질환의 치료에 효과적이지만 IPL은 다양한 파장의 빛을 강한 pulse형태로 방출시켜서 여러 가지 피부질환을 한 번에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 기존의 레이저와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6) 폴라리스 리프트 (Polaris lift)

고주파와 다이오드레이저 두 에너지의 장점만을 채택해 보다 높은 에너지를 진피층 깊게까지 전달해 줌으로써 효과적으로 콜라겐을 생성시켜 준다. 최근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 받고 있는 미국 FDA에서 안전성을 승인받은 최첨단 Anti-Aging 시술법이다.

(7) 프락셀 레이저 (Fraxel laser)

피부를 깎는 레이저의 효과와 피부를 깎지 않는 레이저의 안전성을 다 갖춘 전혀 새로운 개념의 레이저로 피부에 미세열 치료 구역을 정해 1회 시술 시 1cm 당 2,000개의 미세하고 깊은 holes을 뚫어 치료 부위의 15-20% 세포를 집중 치료한다. 이때 레이저 열이 주변으로 확산, 손상된 피부를 집중 치료하면서 주변의 줄기 세포의 도움으로 벗겨내는 기존 레이저 박피보다 훨씬 세포재생 속도가 빠르고 자연스럽게 치료효과가 나타난다.

(8) G 빔 레이저 (G Beam laser)

동양인의 피부에 적합한 새로 나온 최신의 레이저기기로 피부노화를 억제시키고 젊어지게 하는 새로운 치료법이다. 초당 7번의 레이저빔을

아주 짧게 안면피부에 조사하여 표피손상은 거의 없이 진피층에 도달하게하여 필요한 교원섬유와 탄력섬유를 많이 생성하여 피부가 젊고 탄력 있게 하는 치료이다(김희진 2009, p.203).

(9) 호박필 (Pumpkin peel)

기미, 노화, 여드름, 모공등에 좋은 필링이며 특히 다른 필링과는 달리 피부에 적절한 보습효과를 가져오고 촉촉하게 하므로 건성 피부에 좋다(이수근, 2007: p.82).

(10) MTS (Microneedle therapy system)

롤링기법은 자연적 상처 치유요법으로 시술과정은 먼저 더마롤러라는 192개의 극미세 바늘침을 이용한다(강원형, 2006: p.275).

(11) 메조테라피 (Mesotherapy)

피부의 진피층, 결합조직, 피하지방층 등의 조직에 작용하며 약물을 넣은 매우 얇은 바늘을 사용하여 피부의 탄력과 보습, 미백 등의 목적으로 시술한다(강원형, 2006: p.275).

Ⅲ. 연 구 방 법

1. 연구 대상

서울 강북에 거주하는 40~50대 여성을 대상으로 총 199명을 설문 조사하였으며 직업으로는 주부가 92명 (46.2%)로 높은 분포를 보였고, 다음으로는 전문직 50명 (25.1%), 사무직 46명 (23.1%), 공무원 11명 (5.5%) 순으로 나타났다.

2. 조사 도구

본 연구에 이용된 설문지는 총 3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피부관리 행태에 관하여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데이터코딩(data coding)과 데이터크리닝(data cleaning)과정을 거쳐 SPSS V. 12.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유의수준은 5% 이내에서 검증하였고, 설문지 설계는 다음과 같다.

설문지 설계(총 38문항)

- 1) 일반적인 특성에 관하여 알아본다. (11)항목
- 2) 일반 피부관리실 이용경험과 효과 및 만족도를 알아본다. (10)항목
- 3) 미백화장품 이용경험과 효과 및 만족도를 알아본다. (9)항목
- 4) 메디칼 에스테틱 이용경험과 효과 및 만족도를 알아본다. (8)항목

3. 연구 절차

본 연구는 2009년 10월 15일~10월 30일까지 15일간 실시하였다. 설문지를 배포, 그 중 성실하게 응답한 199부를 회수하여 최종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연구의 절차는 4단계로 연구문제의 설정, 설문지 설계, 자료분석, 결론도출의 통계 분석으로 진행되었다.

1) 연구문제 설정

- (1)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관하여 알아본다.
- (2) 일반피부관리실 이용 만족도에 관하여 알아본다.
- (3) 미백화장품의 효과와 만족도에 관하여 알아본다.
- (4) 메디칼스킨케어실 이용 만족도에 관하여 알아본다.

2) 설문지 설계 (부록참조)

3) 자료 처리 및 분석

4) 결론도출 연구결과

4. 자료 처리 및 분석

자료 분석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데이터 코딩(data coding)과 데이터 크리닝(data cleaning)과정을 거쳐,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V. 12.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유의수준은 5% 이내에서 검증하였고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피부미백을 위한 일반 피부관리실 이용정도를 알아보고,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미백 기능성 화장품 사용실태를 알아보고,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메디컬 스킨케어 이용실태를 알아보고,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다음 <표1>는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직업은 주부 92명(46.2%), 전문직 50명(25.1%), 사무직 46명(23.1%), 공무원 11명(5.5%)으로 나타났고, 월평균 소득은 100~200만원 23명(11.6%), 200~300만원 70명(35.2%), 300~400만원 76명(38.2%), 400만원이상 30명(15.1%)으로 나타났다.

피부 건강상태는 매우 좋은 편이다 9명(4.5%), 좋은 편이다 67명(33.7%), 보통이다 103명(51.8%), 조금 나쁜 편이다 20명(10.1%)으로 나타났고, 피부타입은 중성피부는 95명(47.7%), 지성피부 50명(25.1%), 복합성피부 30명(15.1%), 건성피부 24명(12.1%)으로 나타났다.

신체 건강상태는 매우 건강하다 8명(4.0%), 건강하다 71명(35.7%), 보통이다 109명(54.8%), 나쁘다 11명(5.5%)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N)	비율(%)
직업	공무원	11	5.5
	사무직	46	23.1
	전문직	50	25.1
	주부	92	46.2
월평균 소득	100-200만원	23	11.6
	200-300만원	70	35.2
	300-400만원	76	38.2
	400만원이상	30	15.1
피부 건강상태	매우 좋은 편이다	9	4.5
	좋은 편이다	67	33.7
	보통이다	103	51.8
	조금 나쁜 편이다	20	10.1
피부타입	건성피부	24	12.1
	중성피부	95	47.7
	지성피부	50	25.1
	복합성피부	30	15.1
신체 건강상태	매우 건강하다	8	4.0
	건강하다	71	35.7
	보통이다	109	54.8
	나쁘다	11	5.5
합계		199	100.0

2) 조사대상자의 생활습관 특성

다음 <표2> 는 조사대상자의 생활습관 특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먼저 복용하는 건강보조식품 수는 안먹는다 41명(20.6%), 1-2가지 112명(56.3%), 3-4가지 39명(19.6%), 5가지 이상 7명(3.5%)으로 나타났고, 하얀 피부를 위한 운동, 물 섭취, 수면정도에 있어서는 한 가지만한다 94명(47.2%), 두 가지만한다 50명(25.1%), 신경안쓴다 37명(18.6%), 모두 잘 한다 18명(9.0%)순으로 나타났다.

규칙적인 생활에 있어서는 매우 잘한다 10명(5.0%), 잘한다 40명(20.1%), 보통이다 110명(55.3%), 그렇지못하다 39명(19.6%)으로 나타나 전체 25.1%만이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스트레스 정도에 있어서는 매우 많이받는다 12명(6.0%), 많이받는다 67명(33.7%), 보통이다 106명(53.3%), 거의 안 받는다 14명(7.0%)으로 나타나 전체 39.7%가 대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외선 차단을 위한 모자나 양산 사용에 있어서는 하나만 사용이 58명(29.1%), 둘 다 사용 54명(27.1%), 둘 중 아무거나 가끔 사용 53명(26.6%), 전혀 사용하지않는다 34명(17.1%)으로 나타났고, 음주·흡연 여부는 둘 다 전혀 안한다 78명(39.2%), 둘 다한다 51명(25.6%), 하나만한다 42명(21.1%), 둘 중 아무거나 가끔한다 28명(14.1%)순으로 나타났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생활습관 특성

구분		빈도(N)	비율(%)
복용하는 건강보조식품 수	안먹는다	41	20.6
	1-2가지	112	56.3
	3-4가지	39	19.6
	5가지 이상	7	3.5
하얀 피부위한 운동, 물 섭취, 수면 정도	모두 잘 한다	18	9.0
	두 가지만한다	50	25.1
	한 가지만한다	94	47.2
	신경 안쓴다	37	18.6
규칙적 생활	매우 잘 한다	10	5.0
	잘 한다	40	20.1
	보통이다	110	55.3
	그렇지 못하다	39	19.6
스트레스 정도	매우 많이 받는다	12	6.0
	많이 받는다	67	33.7
	보통이다	106	53.3
	거의 안 받는다	14	7.0
자외선차단으로 모자나 양산 사용	둘 다 사용	54	27.1
	하나만 사용	58	29.1
	둘 중 아무거나 가끔 사용	53	26.6
	전혀 사용하지않는다	34	17.1
음주·흡연 여부	둘 다한다	51	25.6
	하나만한다	42	21.1
	둘 중 아무거나 가끔한다	28	14.1
	둘 다 전혀 안 한다	78	39.2
합계		199	100.0

2. 미백을 위한 일반 피부관리실 이용 정도

다음은 미백을 위한 일반 피부관리실 이용정도를 알아보고,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1) 미백관리 이용 기간

다음 <표3>는 미백관리 이용 기간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1년 미만'이 67명(33.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년 정도' 50명(25.1%), '3년 정도' 47명(23.6%), '4년 이상' 35명(17.6%)순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1년 미만 사용한 여성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서는 직업, 월평균 소득, 피부 건강상태, 피부 타입, 신체 건강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5$). 먼저 직업에 따라서는 공무원이나 사무직의 경우 2년 정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문직의 경우 1년 미만, 주부의 경우 3년 정도나 1년 미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고, 월평균 소득에 따라서는 300만원 미만이나 400만원이상의 경우 1년 미만 정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300~400만원의 경우 2년 정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또한 피부건강상태에 따라서는 매우 좋은 편인 경우 4년 이상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금 나쁜 편인 경우 3년 정도, 좋은 편이거나 보통인 편인 경우 1년 미만 정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고, 피부타입에 따라서는 지성피부의 경우 3년 정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성피부의 경우 2년 정도, 건성이나 복합성 피부의 경우 1년 미만 정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신체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비교적 건강한 상태일수록 미백관리 이용기간도 긴 것으로 나타나 다소 차이를 보였다.

<표 3> 미백관리 이용 기간

구분		미백관리 이용 기간								χ^2 (p)
		1년 미만		2년 정도		3년 정도		4년 이상		
		N	%	N	%	N	%	N	%	
직업	공무원	2	18.2	5	45.5	2	18.2	2	18.2	19.257 (.023)
	사무직	10	21.7	15	32.6	11	23.9	10	21.7	
	전문직	27	54.0	8	16.0	6	12.0	9	18.0	
	주부	28	30.4	22	23.9	28	30.4	14	15.2	
월평균 소득	100-200만원	8	34.8	3	13.0	8	34.8	4	17.4	20.975* (.013)
	200-300만원	24	34.3	18	25.7	15	21.4	13	18.6	
	300-400만원	17	22.4	27	35.5	20	26.3	12	15.8	
	400만원이상	18	60.0	2	6.7	4	13.3	6	20.0	
피부 건강상태	매우 좋은 편이다	2	22.2			2	22.2	5	55.6	30.959** (.000)
	좋은 편이다	23	34.3	10	14.9	16	23.9	18	26.9	
	보통이다	38	36.9	36	35.0	20	19.4	9	8.7	
	조금 나쁜 편이다	4	20.0	4	20.0	9	45.0	3	15.0	
피부타입	건성피부	14	58.3	1	4.2	4	16.7	5	20.8	22.774* (.007)
	중성피부	25	26.3	32	33.7	22	23.2	16	16.8	
	지성피부	14	28.0	14	28.0	16	32.0	6	12.0	
	복합성피부	14	46.7	3	10.0	5	16.7	8	26.7	
신체 건강상태	매우 건강하다	3	37.5	2	25.0			3	37.5	25.050** (.003)
	건강하다	21	29.6	11	15.5	16	22.5	23	32.4	
	보통이다	39	35.8	33	30.3	28	25.7	9	8.3	
	나쁘다	4	36.4	4	36.4	3	27.3			
합계		67	33.7	50	25.1	47	23.6	35	17.6	

*p<.05, **p<.01

2) 미백관리 장소

다음 <표4>는 미백관리 장소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미백화장품 사용’이 77명(38.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두 가지 이상 혼용 및 그 외 방법’ 72명(36.2%), ‘일반 피부관리실’ 24명(12.1%), ‘피부과 피부관리실’ 26명(13.1%)순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집에서 미백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서는 직업, 월평균 소득, 피부타입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먼저 직업에 따라서는 전문직의 경우 대체적으로 자신의 집에서 미백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무원이나 사무직, 주부의 경우 두 가지 이상 혼용 및 그 외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고, 월평균 소

특에 따라서는 300만원 미만이나 400만원이상의 경우 대체적으로 자신의 집에서 미백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300~400만원의 경우 두 가지 이상 혼용 및 그 외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또한 피부타입에 따라서는 건성피부나 지성, 복합성 피부의 경우 대체적으로 자신의 집에서 미백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성피부의 경우 두 가지 이상 혼용 및 그 외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표 4> 미백관리 장소

구분		미백관리 장소								χ^2 (p)
		일반		피부과		미백화장품		기타		
		피부관리실		피부관리실		사용				
		N	%	N	%	N	%	N	%	
직업	공무원			3	27.3	1	9.1	7	63.6	25.390** (.003)
	사무직	12	26.1	3	6.5	14	30.4	17	37.0	
	전문직	3	6.0	6	12.0	28	56.0	13	26.0	
	주부	9	9.8	14	15.2	34	37.0	35	38.0	
월평균 소득	100~200만원			6	26.1	15	65.2	2	8.7	29.203** (.001)
	200~300만원	8	11.4	9	12.9	31	44.3	22	31.4	
	300~400만원	13	17.1	7	9.2	17	22.4	39	51.3	
	400만원이상	3	10.0	4	13.3	14	46.7	9	30.0	
피부 건강상태	매우 좋은 편이다	1	11.1	2	22.2	4	44.4	2	22.2	15.354 (.082)
	좋은 편이다	11	16.4	13	19.4	28	41.8	15	22.4	
	보통이다	11	10.7	8	7.8	40	38.8	44	42.7	
	조금 나쁜 편이다	1	5.0	3	15.0	5	25.0	11	55.0	
피부타입	건성피부	3	12.5	2	8.3	12	50.0	7	29.2	19.166* (.024)
	중성피부	16	16.8	15	15.8	24	25.3	40	42.1	
	지성피부	5	10.0	6	12.0	22	44.0	17	34.0	
	복합성피부			3	10.0	19	63.3	8	26.7	
신체 건강상태	매우 건강하다	1	12.5	1	12.5	4	50.0	2	25.0	16.501 (.057)
	건강하다	9	12.7	16	22.5	29	40.8	17	23.9	
	보통이다	14	12.8	8	7.3	41	37.6	46	42.2	
	나쁘다			1	9.1	3	27.3	7	63.6	
합계		24	12.1	26	13.1	77	38.7	72	36.2	

*p<.05, **p<.01

3) 미백관리 장소 선택이유

다음 <표5>는 미백관리 장소 선택이유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비용이 저렴해서’가 111명(55.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변의 권유로’ 45명(22.6%), ‘효과가 좋아서’ 22명(11.1%), ‘안락한 분위기’ 21명(10.6%)순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장소를 선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서는 직업, 피부 건강상태, 신체 건강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먼저 직업에 따라서는 사무직이나 전문직, 주부의 경우 비용이 저렴한 장소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무원의 경우 효과, 안락한 분위기, 비용 등을 골고루 고려해서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고, 피부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매우 좋은 편인 경우 안락한 분위기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좋은 편이나 보통, 조금 나쁜 편인 경우 저렴한 비용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신체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건강하거나 보통인 경우 저렴한 비용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매우 건강한 경우 저렴한 비용과 효과, 나쁜 경우 저렴한 비용과 주변의 권유로 선택한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표 5> 미백관리 장소 선택이유

구분		미백관리 장소 선택이유								χ^2 (p)
		효과가 좋아서		주변의 권유로		안락한 분위기		비용이 저렴해서		
		N	%	N	%	N	%	N	%	
직업	공무원	3	27.3	2	18.2	3	27.3	3	27.3	19.300* (.023)
	사무직	3	6.5	12	26.1	1	2.2	30	65.2	
	전문직	10	20.0	10	20.0	7	14.0	23	46.0	
	주부	6	6.5	21	22.8	10	10.9	55	59.8	
월평균 소득	100~200만원	2	8.7	6	26.1	4	17.4	11	47.8	10.385 (.320)
	200~300만원	8	11.4	17	24.3	4	5.7	41	58.6	
	300~400만원	5	6.6	16	21.1	9	11.8	46	60.5	
	400만원이상	7	23.3	6	20.0	4	13.3	13	43.3	
피부 건강상태	매우 좋은 편이다	3	33.3			4	44.4	2	22.2	27.586** (.001)
	좋은 편이다	7	10.4	15	22.4	11	16.4	34	50.7	
	보통이다	10	9.7	26	25.2	3	2.9	64	62.1	
	조금 나쁜 편이다	2	10.0	4	20.0	3	15.0	11	55.0	
피부타입	건성피부	5	20.8	2	8.3	1	4.2	16	66.7	14.946 (.092)
	중성피부	7	7.4	30	31.6	13	13.7	45	47.4	
	지성피부	6	12.0	8	16.0	4	8.0	32	64.0	
	복합성피부	4	13.3	5	16.7	3	10.0	18	60.0	
신체 건강상태	매우 건강하다	3	37.5	1	12.5	1	12.5	3	37.5	31.897** (.000)
	건강하다	15	21.1	12	16.9	12	16.9	32	45.1	
	보통이다	3	2.8	28	25.7	6	5.5	72	66.1	
	나쁘다	1	9.1	4	36.4	2	18.2	4	36.4	
합계		22	11.1	45	22.6	21	10.6	111	55.8	

*p<.05, **p<.01

4) 미백관리방법

다음 <표6>는 미백관리방법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미백화장품 라인’이 85명(42.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외선차단제품’ 74명(37.2%), ‘각질제거 화장품’ 35명(17.6%), ‘기기를 이용한 스킨링’ 5명(2.5%)순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미백화장품 라인을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서는 월평균 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5), 300만원 미만의 경우 자외선 차단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300~400만원 미만의 경우 미백 화장품 라인을, 400만원이상의 경우 각질제거 화장품이나 자외선 차단제품

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표 6> 관리 위해 주로 사용하는 것

구분		관리 위해 주로 사용하는 것								χ^2 (p)
		미백화장품 라인		각질제거 화장품		자외선차단 제품		기기 이용한 스켈링		
		N	%	N	%	N	%	N	%	
직업	공무원	4	36.4	2	18.2	5	45.5			15.318 (.083)
	사무직	23	50.0	5	10.9	17	37.0	1	22.2	
	전문직	12	24.0	16	32.0	20	40.0	2	4.0	
	주부	46	50.0	12	13.0	32	34.8	2	2.2	
월평균 소득	100~200만원	7	30.4	7	30.4	9	39.1			34.074** (.000)
	200~300만원	24	34.3	14	20.0	31	44.3	1	1.4	
	300~400만원	47	61.8	4	5.3	24	31.6	1	1.3	
	400만원이상	7	23.3	10	33.3	10	33.3	3	10.0	
피부 건강상태	매우 좋은 편이다	2	22.2	4	44.4	3	33.3			6.757 (.662)
	좋은 편이다	27	40.3	12	17.9	26	38.8	2	3.0	
	보통이다	46	44.7	17	16.5	38	36.9	2	1.9	
	조금 나쁜 편이다	10	50.0	2	10.0	7	35.0	1	5.0	
피부타입	건성피부	6	25.0	7	29.2	11	45.8			16.607 (.055)
	중성피부	49	51.6	15	15.8	29	30.5	2	2.1	
	지성피부	21	42.0	11	22.0	16	32.0	2	4.0	
	복합성피부	9	30.0	2	6.7	18	60.0	1	3.3	
신체 건강상태	매우 건강하다	3	37.5	1	12.5	4	50.0			7.882 (.546)
	건강하다	22	31.0	15	21.1	32	45.1	2	2.8	
	보통이다	55	50.5	17	15.6	34	31.2	3	2.8	
	나쁘다	5	45.5	2	18.2	4	36.4			
합계		85	42.7	35	17.6	74	37.2	5	2.5	

**p<.01

5) 미백관리 효과 만족도

다음 <표7>는 미백관리 효과 만족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매우 만족’ 13명(6.5%), ‘만족’ 45명(22.6%), ‘보통’ 134명(67.3%), ‘불만족’ 7명(3.5%)순으로 나타나 전체 29.1%만이 미백관리 효과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서는 피부 건강상태, 신체 건강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1), 대체적으로 피부 건강상태나 신체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미백관리 효과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미백관리 효과 만족도

구분		미백관리 효과 만족도								χ^2 (p)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N	%	N	%	N	%	N	%	
직업	공무원	2	18.2	1	9.1	8	72.7			8.724 (.463)
	사무직	2	4.3	11	23.9	32	69.6	1	2.2	
	전문직	6	12.0	10	20.0	32	64.0	2	4.0	
	주부	3	3.3	23	25.0	62	67.4	4	4.3	
월평균 소득	100-200만원	2	8.7	8	34.8	12	52.2	1	4.3	11.957 (.216)
	200-300만원	2	2.9	12	17.1	53	75.7	3	4.3	
	300-400만원	4	5.3	17	22.4	53	69.7	2	2.6	
	400만원이상	5	16.7	8	26.7	16	53.3	1	3.3	
피부 건강상태	매우 좋은 편이다	3	33.3	3	33.3	3	33.3			31.752** (.000)
	좋은 편이다	5	7.5	26	38.8	34	50.7	2	3.0	
	보통이다	4	3.9	14	13.6	81	78.6	4	3.9	
	조금 나쁜 편이다	1	5.0	2	10.0	16	80.0	1	5.0	
피부타입	건성피부	2	8.3	6	25.0	16	66.7			12.735 (.175)
	중성피부	4	4.2	26	27.4	62	65.3	3	3.2	
	지성피부	6	12.0	4	8.0	38	76.0	2	4.0	
	복합성피부	1	3.3	9	30.0	18	60.0	2	6.7	
신체 건강상태	매우 건강하다	4	50.0	3	37.5	1	12.5			43.252** (.000)
	건강하다	6	8.5	24	33.8	39	54.9	2	2.8	
	보통이다	3	2.8	16	14.7	86	78.9	4	3.7	
	나쁘다			2	18.2	8	72.7	1	9.1	
합계		13	6.5	45	22.6	134	67.3	7	3.5	

**p<.01

6) 현재 이용하는 미백관리 지속의향

다음 <표8>는 현재 이용하는 미백관리 지속의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경제력에 따라 바뀔 수 있다’가 129명(64.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현재 것만 하겠다’ 34명(17.2%), ‘유행추세에 맞추어 할 것이다’ 29명(14.6%), ‘앞으로 하지 않겠다’ 7명(3.5%)순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경제력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서는 직업월평균 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5),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다수가 경제력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현재 이용하는 미백관리 지속의향

구분		현재 이용하는 미백관리 지속의향								χ^2 (p)
		현재 것만 하겠다		앞으로 하지 않겠다		경제력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유행추세에 맞추어 할 것이다		
		N	%	N	%	N	%	N	%	
직업	공무원	1	9.1			6	54.5	4	36.4	25.254** (.003)
	사무직	4	8.7			39	84.8	3	6.5	
	전문직	12	24.0	1	2.0	24	48.0	13	26.0	
	주부	17	18.5	6	6.5	60	65.2	9	9.8	
월평균 소득	100~200만원	6	26.1	2	8.7	13	56.5	2	8.7	18.168* (.033)
	200~300만원	13	18.6	5	7.1	41	58.6	11	15.7	
	300~400만원	7	9.2			59	77.6	10	13.2	
	400만원이상	8	26.7			16	53.3	6	20.0	
피부 건강상태	매우 좋은 편이다	4	44.4			3	33.3	2	22.2	14.985 (.091)
	좋은 편이다	10	14.9	5	7.5	40	59.7	12	17.9	
	보통이다	16	15.5	1	1.0	75	72.8	11	10.7	
	조금 나쁜 편이다	4	20.0	1	5.0	11	55.0	4	20.0	
피부타입	건성피부	7	29.2			14	58.3	3	12.5	8.419 (.493)
	중성피부	11	11.6	5	5.3	63	66.3	16	16.8	
	지성피부	12	24.0	1	2.0	31	62.0	6	12.0	
	복합성피부	4	13.3	1	3.3	21	70.0	4	13.3	
신체 건강상태	매우 건강하다	3	37.5	1	12.5	3	37.5	1	12.5	16.584 (.056)
	건강하다	15	21.1	2	2.8	38	53.5	16	22.5	
	보통이다	14	12.8	3	2.8	82	75.2	10	9.2	
	나쁘다	2	18.2	1	9.1	6	54.5	2	18.2	
합계		34	17.1	7	3.5	129	64.8	29	14.6	

*p<.05, **p<.01

7) 향후 미백관리 위해 이용하고 싶은 장소

다음 <표9>는 향후 미백관리 위해 이용하고 싶은 장소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두 가지 이상 혼용 및 그 외 방법’이 79명(39.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피부와 피부관리실’ 55명(27.6%), ‘유행추세에 맞추어 할 것이다’ 29명(14.6%), ‘앞으로 하지 않겠다’ 7명(3.5%)순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경제력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서는 피부 건강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5), 매우 좋거나 보통, 조금 나쁜 편인 경우 두 가지 이상 혼용 및 그 외 방법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좋은 편인 경우 피부과 피부관리실을 이용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소 차이를 보였다.

<표 9> 향후 미백관리위해 이용하고 싶은 장소

구분		향후 미백관리위해 이용하고 싶은 장소								χ^2 (p)
		일반		피부과		미백		기타		
		피부관리실		피부관리실		화장품사용				
		N	%	N	%	N	%	N	%	
직업	공무원	1	9.1	3	27.3	2	18.2	5	45.5	6.184 (.721)
	사무직	7	15.2	12	26.1	6	13.0	21	45.7	
	전문직	6	12.0	17	34.0	13	26.0	14	28.0	
	주부	14	15.2	23	25.0	16	17.4	39	42.4	
월평균 소득	100-200만원	3	13.0	7	30.4	7	30.4	6	26.1	14.490 (.106)
	200-300만원	7	10.0	22	31.4	14	20.0	27	38.6	
	300-400만원	12	15.8	19	25.0	7	9.2	38	50.0	
	400만원이상	6	20.0	7	23.3	9	30.0	8	26.7	
피부 건강상태	매우 좋은 편이다	2	22.2	2	22.2	2	22.2	3	33.3	18.367* (.031)
	좋은 편이다	7	10.4	28	41.8	15	22.4	17	25.4	
	보통이다	14	13.6	21	20.4	19	18.4	49	47.6	
	조금 나쁜 편이다	5	25.0	4	20.0	1	5.0	10	50.0	
피부타입	건성피부	5	20.8	6	25.0	6	25.0	7	29.2	5.101 (.825)
	중성피부	12	12.6	29	30.5	17	17.9	37	38.9	
	지성피부	5	10.0	12	24.0	9	18.0	24	48.0	
	복합성피부	6	20.0	8	26.7	5	16.7	11	36.7	
신체 건강상태	매우 건강하다	3	37.5	3	37.5	2	25.0			15.007 (.091)
	건강하다	9	12.7	24	33.8	17	23.9	21	29.6	
	보통이다	15	13.8	25	22.9	16	14.7	53	48.6	
	나쁘다	1	9.1	3	27.3	2	18.2	5	45.5	
합계		28	14.1	55	27.6	37	18.6	79	39.7	

*p<.05

9) 미백관리를 위한 한달 지출비용

다음 <표10>는 미백관리를 위한 한달 지출비용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20만원 미만’이 148명(74.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40만원미만’ 42명(21.1%), ‘40만원이상’ 9명(4.5%)순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미백관리를 위해 20만원 미만의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서는 피부타입, 신체 건강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5$),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다수가 미백관리를 위해 20만원 미만의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미백관리를 위한 한달 지출비용

구분		미백관리를 위한 한달 지출비용						χ^2 (p)
		20만원 미만		40만원 미만		40만원이상		
		N	%	N	%	N	%	
직업	공무원	4	36.4	5	45.5	2	18.2	11.778 (.067)
	사무직	34	73.9	10	21.7	2	4.3	
	전문직	37	74.0	10	20.0	3	6.0	
	주부	73	79.3	17	18.5	2	2.2	
월평균 소득	100-200만원	17	73.9	6	26.1			4.281 (.639)
	200-300만원	52	74.3	16	22.9	2	2.9	
	300-400만원	57	75.0	15	19.7	4	5.3	
	400만원이상	22	73.3	5	16.7	3	10.0	
피부 건강상태	매우 좋은 편이다	6	66.7	2	22.2	1	11.1	10.089 (.121)
	좋은 편이다	43	64.2	20	29.9	4	6.0	
	보통이다	85	82.5	14	13.6	4	3.9	
	조금 나쁜 편이다	14	70.0	6	30.0			
피부타입	건성피부	19	79.2	3	12.5	2	8.3	13.546 (.035)
	중성피부	66	69.5	28	29.5	1	1.1	
	지성피부	39	78.0	6	12.0	5	10.0	
	복합성피부	24	80.0	5	16.7	1	3.3	
신체 건강상태	매우 건강하다	5	62.5	1	12.5	2	25.0	24.511** (.000)
	건강하다	42	59.2	25	35.2	4	5.6	
	보통이다	93	85.3	13	11.9	3	2.8	
	나쁘다	8	72.7	3	27.3			
합계		148	74.4	42	21.1	9	4.5	

* $p<.05$, ** $p<.01$

9) 피부관리실에서 관리 받는 횟수

다음 <표11>는 피부관리실에서 관리 받는 횟수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없다’가 76명(38.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월 2-3회’ 61명(30.7%), ‘주 1회’ 36명(18.1%), ‘주 2회 이상’ 26명(13.1%)순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피부관리실에서 관리를 받은 경험이 없는 여성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서는 직업, 월평균 소득, 피부타

입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1$). 먼저 직업에 따라서는 전문직의 경우 피부관리실에서 관리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사무직이나 주부의 경우 월 2-3회 정도, 공무원의 경우 주 2회 이상 관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고, 월평균 소득에 따라서는 300만원 미만이나 400만원이상의 경우 피부관리실에서 관리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300~400만원 미만의 경우 월 2-3회 정도 관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또한 피부타입에 따라서는 건성, 지성, 복합성 피부의 경우 피부관리실에서 관리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성피부의 경우 월 2-3회 정도 관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표 11> 피부관리실에서 관리 받는 횟수

구분		피부관리실에서 관리 받는 횟수								χ^2 (p)
		없다		주 1회		주 2회 이상		월 2-3회		
		N	%	N	%	N	%	N	%	
직업	공무원	1	9.1	2	18.2	6	54.5	2	18.2	36.721 (.000)
	사무직	17	37.0	7	15.2	4	8.7	18	39.1	
	전문직	28	56.0	11	22.0	7	14.0	4	8.0	
	주부	30	32.6	16	17.4	9	9.8	37	40.2	
월평균 소득	100-200만원	15	65.2	4	17.4	4	17.4			41.901** (.000)
	200-300만원	32	45.7	16	22.9	8	11.4	14	20.0	
	300-400만원	16	21.1	9	11.8	9	11.8	42	55.3	
	400만원이상	13	43.3	7	23.3	5	16.7	5	16.7	
피부 건강상태	매우 좋은 편이다	5	55.6			2	22.2	2	22.2	13.978 (.123)
	좋은 편이다	28	41.8	14	20.9	11	16.4	14	20.9	
	보통이다	38	36.9	20	19.4	8	7.8	37	35.9	
	조금 나쁜 편이다	5	25.0	2	10.0	5	25.0	8	40.0	
피부타입	건성피부	13	54.2	3	12.5	3	12.5	5	20.8	23.534** (.005)
	중성피부	24	25.3	17	17.9	14	14.7	40	42.1	
	지성피부	19	38.0	11	22.0	7	14.0	13	26.0	
	복합성피부	20	66.7	5	16.7	2	6.7	3	10.0	
신체 건강상태	매우 건강하다	4	50.0	2	25.0	1	12.5	1	12.5	14.354 (.110)
	건강하다	31	43.7	14	19.7	14	19.7	12	16.9	
	보통이다	37	33.9	18	16.5	10	9.2	44	40.4	
	나쁘다	4	36.4	2	18.2	1	9.1	4	36.4	
합계		76	38.2	36	18.1	26	13.1	61	30.7	

** $p<.01$

10) 피부관리실에서 받아본 경험 없는 이유

다음 <표12>는 피부관리실에서 관리를 받아본 경험이 없는 76명을 대상으로 받아본 경험이 없는 이유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가격이 비싸서’가 48명(63.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거리가 멀거나 시간이 없어서’ 19명(25.0%),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8명(10.5%), ‘피부관리사의 능력부족’ 1명(1.3%)순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가격이 비싸서 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서는 피부 건강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5$), 좋거나 보통인 경우 가격이 비싸서 받지 못했으나 나쁜 편인 경우 거리가 멀거나 시간이 없어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다소 차이를 보였다.

<표 12> 피부관리실에서 받아본 경험 없는 이유

구분		피부관리실에서 받아본 경험 없는 이유								χ^2 (p)
		가격이 비싸서		거리나 시간 때문에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피부관리사의 능력부족		
		N	%	N	%	N	%	N	%	
직업	공무원	1	100.0							3.674 (.932)
	사무직	10	58.8	4	23.5	3	17.6			
	전문직	17	60.7	8	28.6	3	10.7			
	주부	20	66.7	7	23.3	2	6.7	1	3.3	
월평균 소득	100~200만원	10	66.7	4	26.7	1	6.7			5.155 (.821)
	200~300만원	22	68.8	7	21.9	3	9.4			
	300~400만원	9	56.3	4	25.0	2	12.5	1	6.3	
	400만원이상	7	53.8	4	30.8	2	15.4			
피부 건강상태	매우 좋은 편이다	1	20.0	2	40.0	2	40.0			18.718* (.028)
	좋은 편이다	22	78.6	3	10.7	3	10.7			
	보통이다	24	63.2	10	26.3	3	7.9	1	2.6	
	조금 나쁜 편이다	1	20.0	4	80.0					
피부타입	건성피부	8	61.5	4	30.8	1	7.7			4.634 (.865)
	중성피부	16	66.7	4	16.7	3	12.5	1	4.2	
	지성피부	11	57.9	5	26.3	3	15.8			
	복합성피부	13	65.0	6	30.0	1	5.0			
신체 건강상태	매우 건강하다	1	25.0	2	50.0	1	25.0			10.854 (.286)
	건강하다	22	71.0	7	22.6	2	6.5			
	보통이다	24	64.9	7	18.9	5	13.5	1	2.7	
	나쁘다	1	25.0	3	75.0					
합계		48	63.2	19	25.0	8	10.5	1	1.3	

* $p<.05$

3. 미백 기능성 화장품 사용실태

다음은 미백 기능성 화장품 사용실태를 알아보고,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1) 현재 사용하는 기초화장품 종류

다음 <표13>는 현재 사용하는 기초화장품 종류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정상용 피부에 맞는 제품’이 96명(48.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복합성 피부에 맞는 제품’ 47명(23.6%), ‘유분성이 많은 제품’ 32명(16.1%), ‘오일프리 제품’ 24명(12.1%)순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정상용 피부에 맞는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서는 피부 건강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5$), 대체적으로 정상용 피부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외에 지성이나 복합성피부의 경우 복합성 피부에 맞는 제품을, 중성피부의 경우 유분성이 많거나 복합성 피부에 맞는 제품, 건성피부의 경우 유분성이 많은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소 차이를 보였다.

<표 13> 현재 사용하는 기초화장품 종류

구분		현재 사용하는 기초화장품 종류								χ^2 (p)
		오일프리 제품		유분성이 많은 제품		정상용 피부에 맞는 제품		복합성 피부에 맞는 제품		
		N	%	N	%	N	%	N	%	
직업	공무원	3	27.3	3	27.3	5	45.5			10.704 (.297)
	사무직	6	13.0	4	8.7	23	50.0	13	28.3	
	전문직	3	6.0	9	18.0	23	46.0	15	30.0	
	주부	12	13.0	16	17.4	45	48.9	19	20.7	
월평균 소득	100~200만원	2	8.7	7	30.4	7	30.4	7	30.4	13.283 (.150)
	200~300만원	12	17.1	11	15.7	31	44.3	16	22.9	
	300~400만원	5	6.6	9	11.8	46	60.5	16	21.1	
	400만원이상	5	16.7	5	16.7	12	40.0	8	26.7	
피부 건강상태	매우 좋은 편이다	1	11.1	1	11.1	5	55.6	2	22.2	12.528 (.185)
	좋은 편이다	12	17.9	14	20.9	21	31.3	20	29.9	
	보통이다	9	8.7	15	14.6	59	57.3	20	19.4	
	조금 나쁜 편이다	2	10.0	2	10.0	11	55.0	5	25.0	
피부타입	건성피부	2	8.3	8	33.3	9	37.5	5	20.8	18.975* (.025)
	중성피부	10	10.5	15	15.8	55	57.9	15	15.8	
	지성피부	7	14.0	8	16.0	20	40.0	15	30.0	
	복합성피부	5	16.7	1	3.3	12	40.0	12	40.0	
신체 건강상태	매우 건강하다	1	12.5	2	25.0	4	50.0	1	12.5	10.337 (.324)
	건강하다	14	19.7	13	18.3	26	36.6	18	25.4	
	보통이다	8	7.3	15	13.8	60	55.0	26	23.9	
	나쁘다	1	9.1	2	18.2	6	54.5	2	18.2	
합계		24	12.1	32	16.1	96	48.2	47	23.6	

*p<.05

2) 사용하는 화장품

다음 <표14>는 사용하는 화장품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국산화장품’이 79명(39.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천연화장품’ 64명(32.2%), ‘한방화장품’ 43명(21.6%), ‘외국화장품’ 13명(6.5%) 순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국산화장품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서는 직업, 월평균 소득, 피부 건강상태, 피부 타입, 신체 건강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먼저 직업에 따라서는 공무원이나 사무직의 경우 천연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문직이나 주부의 경우 국산화장품

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고, 월평균 소득에 따라서는 300만원 미만이나 400만원이상의 경우 국산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300~400만원의 경우 천연화장품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또한 피부건강상태에 따라서는 매우 좋은 편이거나 조금 나쁜 편인 경우 천연화장품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좋은 편이거나 보통인 편인 경우 국산화장품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고, 피부타입에 따라서는 지성피부나 복합성 피부의 경우 국산화장품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건성피부의 경우 한방화장품을, 중성피부의 경우 천연화장품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신체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건강한 경우 국산화장품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통인 경우 천연화장품을, 나쁜 경우 한방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표 14> 사용하는 화장품

구분		사용하는 화장품								χ^2 (p)
		국산화장품		한방화장품		천연화장품		외국화장품		
		N	%	N	%	N	%	N	%	
직업	공무원	2	18.2	3	27.3	5	45.5	1	9.1	29.868* (.000)
	사무직	16	34.8	7	15.2	23	50.0			
	전문직	24	48.0	11	22.0	6	12.0	9	18.0	
	주부	37	40.2	22	23.9	30	32.6	3	3.3	
월평균 소득	100~200만원	11	47.8	7	30.4	4	17.4	1	4.3	18.438* (.030)
	200~300만원	32	45.7	18	25.7	18	25.7	2	2.9	
	300~400만원	25	32.9	9	11.8	35	46.1	7	9.2	
	400만원이상	11	36.7	9	30.0	7	23.3	3	10.0	
피부 건강상태	매우 좋은 편이다	2	22.2	1	11.1	4	44.4	2	22.2	19.900* (.019)
	좋은 편이다	32	47.8	14	20.9	15	22.4	6	9.0	
	보통이다	42	40.8	19	18.4	37	35.9	5	4.9	
	조금 나쁜 편이다	3	15.0	9	45.0	8	40.0			
피부타입	건성피부	9	37.5	10	41.7	4	16.7	1	4.2	28.670** (.001)
	중성피부	32	33.7	11	11.6	44	46.3	8	8.4	
	지성피부	20	40.0	15	30.0	13	26.0	2	4.0	
	복합성피부	18	60.0	7	23.3	3	10.0	2	6.7	
신체 건강상태	매우 건강하다	4	50.0	1	12.5	2	25.0	1	12.5	27.666** (.001)
	건강하다	30	42.3	21	29.6	12	16.9	8	11.3	
	보통이다	44	40.4	15	13.8	46	42.2	4	3.7	
	나쁘다	1	9.1	6	54.5	4	36.4			
합계		79	39.7	43	21.6	64	32.2	13	6.5	

* p<.05, ** p<.01

3) 미백기능성 화장품 사용기간

다음 <표15>는 미백기능성 화장품 사용기간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2년 미만'이 105명(52.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4년 미만' 39명(19.6%), '4년 이상' 33명(16.6%), '사용한 적 없다' 22명(11.1%)순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2년 미만 정도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서는 피부 타입, 신체 건강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먼저 피부타입에 따라서는 건성피부의 경우 사용한 적 없거나 4년 이상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성이나 지성, 복합성피부의 경우 2년 미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고, 신체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매우 건강한 경우 4년 이상 이용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건강하거나 보통, 나쁜 경우 2년 미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다소 차이를 보였다.

<표 15> 미백기능성 화장품 사용기간

구분		미백기능성 화장품 사용기간								χ^2 (p)
		사용안함		2년 미만		4년 미만		4년 이상		
		N	%	N	%	N	%	N	%	
직업	공무원	1	9.1	5	45.5	4	36.4	1	9.1	15.044 (.090)
	사무직	3	6.5	28	60.9	6	13.0	9	19.6	
	전문직	10	20.0	18	36.0	10	20.0	12	24.0	
	주부	8	8.7	54	58.7	19	20.7	11	12.0	
월평균 소득	100~200만원	5	21.7	10	43.5	3	13.0	5	21.7	16.064 (.066)
	200~300만원	10	14.3	39	55.7	10	14.3	11	15.7	
	300~400만원	4	5.3	43	56.6	21	27.6	8	10.5	
	400만원이상	3	10.0	13	43.3	5	16.7	9	30.0	
피부 건강상태	매우 좋은 편이다	1	11.1	3	33.3	3	33.3	2	22.2	15.037 (.090)
	좋은 편이다	8	11.9	27	40.3	16	23.9	16	23.9	
	보통이다	10	9.7	67	65.0	14	13.6	12	11.7	
	조금 나쁜 편이다	3	15.0	8	40.0	6	30.0	3	15.0	
피부타입	건성피부	8	33.3	5	20.8	3	12.5	8	33.3	38.134* (.000)
	중성피부	8	8.4	57	60.0	23	24.2	7	7.4	
	지성피부	2	4.0	32	64.0	8	16.0	8	16.0	
	복합성피부	4	13.3	11	36.7	5	16.7	10	33.3	
신체 건강상태	매우 건강하다	2	25.0	1	12.5	2	25.0	3	37.5	19.360* (.022)
	건강하다	7	9.9	29	40.8	17	23.9	18	25.4	
	보통이다	12	11.0	68	62.4	17	15.6	12	11.0	
	나쁘다	1	9.1	7	63.6	3	27.3			
합계		22	11.1	105	52.8	39	19.6	33	16.6	

*p<.05, **p<.01

4) 미백화장품 만족도

다음 <표16>는 미백기능성 화장품을 사용하는 177명을 대상으로 만족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매우 만족’ 11명(6.2%), ‘만족’ 65명(36.7%), ‘보통이다’ 98명(55.4%), ‘불만족’ 3명(1.7%)으로 나타나 전체 42.9%가 미백화장품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서는 직업, 피부 건강상태, 신체 건강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먼저 직업에 따라서는 공무원이나 사무직의 경우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피부 건강상태나 신체 건강상태에 따라서도 피부 및 신체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미백화장품 만족도

구분		미백화장품 만족도								χ^2 (p)
		매우 만족		만족		보통이다		불만족		
		N	%	N	%	N	%	N	%	
직업	공무원	3	30.0	3	30.0	4	40.0			20.730 (.014)
	사무직	2	4.7	23	53.5	17	39.5	1	2.3	
	전문직	4	10.0	12	30.0	23	57.5	1	2.5	
	주부	2	2.4	27	32.1	54	64.3	1	1.2	
월평균 소득	100~200만원	1	5.6	9	50.0	8	44.4			13.350 (.147)
	200~300만원	3	5.0	26	43.3	31	51.7			
	300~400만원	4	5.6	20	27.8	47	65.3	1	1.4	
	400만원이상	3	11.1	10	37.0	12	44.4	2	7.4	
피부 건강상태	매우 좋은 편이다	3	37.5	2	25.0	3	37.5			30.911** (.000)
	좋은 편이다	5	8.5	31	52.5	21	35.6	2	3.4	
	보통이다	2	2.2	28	30.1	62	66.7	1	1.1	
	조금 나쁜 편이다	1	5.9	4	23.5	12	70.6			
피부타입	건성피부	1	6.3	5	31.3	10	62.5			3.829 (.922)
	중성피부	6	6.9	29	33.3	50	57.5	2	2.3	
	지성피부	3	6.3	21	43.8	24	50.0			
	복합성피부	1	3.8	10	38.5	14	53.8	1	3.8	
신체 건강상태	매우 건강하다	2	33.3	2	33.3	2	33.3			21.911** (.009)
	건강하다	8	12.5	28	43.8	27	42.2	1	1.6	
	보통이다	1	1.0	32	33.0	62	63.9	2	2.1	
	나쁘다			3	30.0	7	70.0			
합계		11	6.2	65	36.7	98	55.4	3	1.7	

*p<.05, **p<.01

5) 주로 사용하는 미백라인

다음 <표17>는 미백기능성 화장품을 사용하는 177명을 대상으로 주로 사용하는 미백라인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미백 에센스’가 104명(58.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미백 영양앰플’ 44명(24.9%), ‘미백 스킨·로션’ 21명(11.9%), ‘미백팩’ 8명(4.5%)순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미백 에센스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표 17> 주로 사용하는 미백라인

구분		주로 사용하는 미백라인								χ^2 (p)
		미백 스킨·로션		미백 에센스		미백 영양앰플		미백팩		
		N	%	N	%	N	%	N	%	
직업	공무원	2	20.0	5	50.0	3	30.0			13.059 (.160)
	사무직	4	9.3	30	69.8	6	14.0	3	7.0	
	전문직	9	22.5	21	52.5	8	20.0	2	5.0	
	주부	6	7.1	48	57.1	27	32.1	3	3.6	
월평균 소득	100~200만원	3	16.7	10	55.6	4	22.2	1	5.6	5.437 (.795)
	200~300만원	8	13.3	40	66.7	10	16.7	2	3.3	
	300~400만원	7	9.7	38	52.8	23	31.9	4	5.6	
	400만원이상	3	11.1	16	59.3	7	25.9	1	3.7	
피부 건강상태	매우 좋은 편이다	2	25.0	4	50.0	1	12.5	1	12.5	11.483 (.244)
	좋은 편이다	11	18.6	34	57.6	11	18.6	3	5.1	
	보통이다	6	6.5	54	58.1	29	31.2	4	4.3	
	조금 나쁜 편이다	2	11.8	12	70.6	3	17.6			
피부타입	건성피부	3	18.8	11	68.8	2	12.5			6.644 (.674)
	중성피부	10	11.5	53	60.9	20	23.0	4	4.6	
	지성피부	5	10.4	24	50.0	17	35.4	2	4.2	
	복합성피부	3	11.5	16	61.5	5	19.2	2	7.7	
신체 건강상태	매우 건강하다	2	33.3	3	50.0	1	16.7			11.062 (.271)
	건강하다	10	15.6	32	50.0	18	28.1	4	6.3	
	보통이다	8	8.2	60	61.9	25	25.8	4	4.1	
	나쁘다	1	10.0	9	90.0					
합계		21	11.9	104	58.8	44	24.9	8	4.5	

6) 자외선차단제 사용여부

다음 <표18>는 자외선차단제 사용여부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항상사용한다’가 113명(56.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외출시에 사용한다’ 61명(30.7%), ‘여름에만 사용한다’ 21명(10.6%), ‘운동할 때 사용한다’ 8명(4.5%)순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항상 사용하는 여성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서는 월평균 소득, 피부 건강상태, 피부타입, 신체 건강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5$),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다수가 항상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8> 자외선차단제 사용여부

구분		자외선차단제 사용여부								χ^2 (p)
		항상 사용한다		외출시사용 한다		여름에만 사용한다		운동할 때 사용한다		
		N	%	N	%	N	%	N	%	
직업	공무원	4	36.4	5	45.5	2	18.2			12.858 (.169)
	사무직	32	69.6	12	26.1	2	4.3			
	전문직	22	44.0	21	42.0	5	10.0	2	4.0	
	주부	55	59.8	23	25.0	12	13.0	2	2.2	
월평균 소득	100~200만원	10	43.5	8	34.8	4	17.4	1	4.3	23.421** (.005)
	200~300만원	31	44.3	25	35.7	13	18.6	1	1.4	
	300~400만원	56	73.7	15	19.7	4	5.3	1	1.3	
	400만원이상	16	53.3	13	43.3			1	3.3	
피부 건강상태	매우 좋은 편이다	7	77.8	2	22.2					17.858* (.037)
	좋은 편이다	29	43.3	28	41.8	9	13.4	1	1.5	
	보통이다	69	67.0	21	20.4	11	10.7	2	1.9	
	조금 나쁜 편이다	8	40.0	10	50.0	1	5.0	1	5.0	
피부타입	건성피부	13	54.2	6	25.0	5	20.8			20.087* (.017)
	중성피부	63	66.3	26	27.4	5	5.3	1	1.1	
	지성피부	23	46.0	16	32.0	10	20.0	1	2.0	
	복합성피부	14	46.7	13	43.3	1	3.3	2	6.7	
신체 건강상태	매우 건강하다	5	62.5	3	37.5					17.601* (.040)
	건강하다	31	43.7	29	40.8	9	12.7	2	2.8	
	보통이다	73	67.0	26	23.9	9	8.3	1	.9	
	나쁘다	4	36.4	3	27.3	3	27.3	1	9.1	
합계		113	56.8	61	30.7	21	10.6	4	2.0	

*p<.05, **p<.01

7) BB크림 사용여부

다음 <표19>는 BB크림 사용여부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파운데이션 대용으로 외출시 사용’이 135명(67.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항상 사용’ 45명(22.6%), ‘햇볕이 강할 때 사용’ 14명(7.0%), ‘실외 운동 시 사용’ 5명(2.5%)순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파운데이션 대용으로 외출 시 사용하는 여성들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서는 월평균 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5),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각 소득 모두 파운데이션 대용으로 외출 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BB크림 사용여부

구분		BB크림 사용여부								χ^2 (p)
		항상 사용		파운데이션 대용으로 외출시사용		실외 운동 시 사용		햇볕이 강할 때 사용		
		N	%	N	%	N	%	N	%	
직업	공무원	2	18.2	8	72.7			1	9.1	14.013 (.122)
	사무직	11	23.9	34	73.9			1	2.2	
	전문직	13	26.0	27	54.0	4	8.0	6	12.0	
	주부	19	20.7	66	71.7	1	1.1	6	6.5	
월평균 소득	100~200만원	7	30.4	15	65.2			1	4.3	20.644* (.014)
	200~300만원	18	25.7	47	67.1	1	1.4	4	5.7	
	300~400만원	14	18.4	58	76.3	2	2.6	2	2.6	
	400만원이상	6	20.0	15	50.0	2	6.7	7	23.3	
피부 건강상태	매우 좋은 편이다	4	44.4	5	55.6					8.717 (.464)
	좋은 편이다	17	25.4	42	62.7	2	3.0	6	9.0	
	보통이다	22	21.4	74	71.8	2	1.9	5	4.9	
	조금 나쁜 편이다	2	10.0	14	70.0	1	5.0	3	15.0	
피부타입	건성피부	10	41.7	13	54.2			1	4.2	11.634 (.235)
	중성피부	21	22.1	67	70.5	1	1.1	6	6.3	
	지성피부	9	18.0	35	70.0	3	6.0	3	6.0	
	복합성피부	5	16.7	20	66.7	1	3.3	4	13.3	
신체 건강상태	매우 건강하다	3	37.5	4	50.0			1	12.5	15.074 (.089)
	건강하다	20	28.2	41	57.7	2	2.8	8	11.3	
	보통이다	20	18.3	84	77.1	2	1.8	3	2.8	
	나쁘다	2	18.2	6	54.5	1	9.1	2	18.2	
합계		45	22.6	135	67.8	5	2.5	14	7.0	

*p<.05

8) 미백화장품 살경우 중요시하는 부분

다음 <표20>는 미백화장품 살경우 중요시하는 부분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볼때, ‘제품효능효과’가 105명(52.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제조회사 및 브랜드’ 58명(29.1%), ‘주요원료 및 성분’ 29명(14.6%), ‘가격’ 7명(3.5%)순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제품의 효능이나 효과를 가장 중요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서는 월평균 소득, 신체 건강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먼저 월평균 소득에 따라서는 100~200만원의 경우 제조회사 및 브랜드를 중요시 하는 반면 200만원이상의 경우 제품의 효능이나 효과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

타났고, 신체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매우 건강한 경우 주요원료 및 성분을 중요시하는 반면 건강한 경우 제조회사 및 브랜드를, 보통이거나 나쁜 경우 제품의 효능이나 효과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소 차이를 보였다.

<표 20> 미백화장품 살경우 중요시하는 부분

구분		미백화장품 살경우 중요시 하는 부분								χ^2 (p)
		주요원료 및 성분		제조회사 및 브랜드		제품 효능·효과		가격		
		N	%	N	%	N	%	N	%	
직업	공무원	2	18.2	6	54.5	3	27.3			14.233 (.114)
	사무직	3	6.5	12	26.1	30	65.2	1	2.2	
	전문직	11	22.0	13	26.0	22	44.0	4	8.0	
	주부	13	14.1	27	29.3	50	54.3	2	2.2	
월평균 소득	100~200만원	7	30.4	8	34.8	7	30.4	1	4.3	27.189** (.001)
	200~300만원	13	18.6	21	30.0	35	50.0	1	1.4	
	300~400만원	5	6.6	18	23.7	52	68.4	1	1.3	
	400만원이상	4	13.3	11	36.7	11	36.7	4	13.3	
피부 건강상태	매우 좋은 편이다	2	22.2	3	33.3	4	44.4			11.262 (.258)
	좋은 편이다	15	22.4	22	32.8	27	40.3	3	4.5	
	보통이다	9	8.7	29	28.2	61	59.2	4	3.9	
	조금 나쁜 편이다	3	15.0	4	20.0	13	65.0			
피부타입	건성피부	4	16.7	4	16.7	13	54.2	3	12.5	11.377 (.251)
	중성피부	12	12.6	27	28.4	53	55.8	3	3.2	
	지성피부	7	14.0	19	38.0	24	48.0			
	복합성피부	6	20.0	8	26.7	15	50.0	1	3.3	
신체 건강상태	매우 건강하다	4	50.0	2	25.0	1	12.5	1	12.5	34.999** (.000)
	건강하다	16	22.5	28	39.4	24	33.8	3	4.2	
	보통이다	7	6.4	24	22.0	75	68.8	3	2.8	
	나쁘다	2	18.2	4	36.4	5	45.5			
합계		29	14.6	58	29.1	105	52.8	7	3.5	

**p<.01

9) 화장품 라인중 추가 사용하고 싶은 제품종류

다음 <표21>는 화장품 라인중 추가 사용하고 싶은 제품종류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탄력라인’이 91명(45.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미백라인’ 61명(30.7%), ‘영양라인’ 28명(14.1%), ‘수분라인’ 19명(9.5%)순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탄력라인을 추가적으로 가장

사용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서는 피부타입, 신체 건강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먼저 피부타입에 따라서는 다소 차이는 있으나 각 타입 모두 탄력라인을 추가적으로 가장 사용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체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매우 건강하거나 보통인 경우 탄력라인을, 건강하거나 나쁜 상태인 경우 미백라인을 가장 사용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표 21> 화장품 라인중 추가 사용하고 싶은 제품종류

구분		화장품 라인 중 추가사용하고 싶은 제품종류								χ^2 (p)
		수분라인		영양라인		미백라인		탄력라인		
		N	%	N	%	N	%	N	%	
직업	공무원	1	9.1	3	27.3	5	45.5	2	18.2	11.003 (.275)
	사무직	4	8.7	3	6.5	16	34.8	23	50.0	
	전문직	8	16.0	7	14.0	11	22.0	24	48.0	
	주부	6	6.5	15	16.3	29	31.5	42	45.7	
월평균 소득	100~200만원	1	4.3	7	30.4	6	26.1	9	39.1	12.273 (.198)
	200~300만원	8	11.4	13	18.6	20	28.6	29	41.4	
	300~400만원	6	7.9	5	6.6	27	35.5	38	50.0	
	400만원이상	4	13.3	3	10.0	8	26.7	15	50.0	
피부 건강상태	매우 좋은 편이다	1	11.1			1	11.1	7	77.8	11.833 (.223)
	좋은 편이다	9	13.4	11	16.4	23	34.3	24	35.8	
	보통이다	8	7.8	12	11.7	30	29.1	53	51.5	
	조금 나쁜 편이다	1	5.0	5	25.0	7	35.0	7	35.0	
피부타입	건성피부	6	25.0	2	8.3	5	20.8	11	45.8	18.878 (.026)
	중성피부	3	3.2	11	11.6	36	37.9	45	47.4	
	지성피부	5	10.0	10	20.0	15	30.0	20	40.0	
	복합성피부	5	16.7	5	16.7	5	16.7	15	50.0	
신체 건강상태	매우 건강하다	2	25.0	1	12.5	2	25.0	3	37.5	19.329* (.023)
	건강하다	10	14.1	9	12.7	27	38.0	25	35.2	
	보통이다	7	6.4	14	12.8	27	24.8	61	56.0	
	나쁘다			4	36.4	5	45.5	2	18.2	
합계		19	9.5	28	14.1	61	30.7	91	45.7	

* $p<.05$

4. 메디컬 스킨케어 이용실태

다음은 메디컬 스킨케어 이용실태를 알아보고,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

과이다.

1) 시술받은 스킨케어 종류

다음 <표22>는 시술받은 메디컬 스킨케어 종류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다. 메디컬 스킨케어 시술에 대한 응답으로 ‘받은 적 없다’가 92명(46.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기를 이용한 박피술(Fraxel laser, IPL)’ 64명(32.2%), ‘화학약품을 이용한 박피술(TCA,Peeling)’ 29명(14.6%), ‘주사요법(Mesotherapy,MTS)’ 14명(7.0%)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서는 월평균 소득, 피부 건강상태, 피부타입, 신체 건강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먼저 월평균 소득에 따라서는 300만원 미만이나 400만원이상의 경우 받은 경험이 없는 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300-400만원의 경우 기기를 이용한 박피술(Fraxel laser,IPL)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피부 건강상태에 따라서도 좋은 편이거나 나쁜 편인 경우 받은 적이 없는 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통인 경우 기기를 이용한 박피술(Fraxel laser, IPL)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또한 피부타입에 따라서는 건성이나 지성, 복합성피부의 경우 받은 경험이 없는 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성피부의 경우 기기를 이용한 박피술(Fraxel laser, IPL)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신체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좋은 편이거나 나쁜 편인 경우 받은 적이 없는 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통인 경우 기기를 이용한 박피술(Fraxel, laser)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표 22> 시술받은 스킨케어 종류

구분		받은 시술 종류								χ^2 (p)
		받은 적 없다		화학약품을 이용한 박피 술 (TCA, 필링등)		주사요법 (메조테라피, MTS)		기기를 이용 한 박피술 (프락셔널레이 저,IPL)		
		N	%	N	%	N	%	N	%	
직업	공무원	5	45.5	2	18.2	2	18.2	2	18.2	12.768 (.173)
	사무직	16	34.8	9	19.6	1	2.2	20	43.5	
	전문직	30	60.0	6	12.0	3	6.0	11	22.0	
	주부	41	44.6	12	13.0	8	8.7	31	33.7	
월평균 소득	100~200만원	15	65.2	3	13.0	2	8.7	3	13.0	23.289** (.006)
	200~300만원	36	51.4	15	21.4	4	5.7	15	21.4	
	300~400만원	24	31.6	8	10.5	6	7.9	38	50.0	
	400만원이상	17	56.7	3	10.0	2	6.7	8	26.7	
피부 건강상태	매우 좋은 편이다	4	44.4	1	11.1	1	11.1	3	33.3	19.124* (.024)
	좋은 편이다	39	58.2	11	16.4	7	10.4	10	14.9	
	보통이다	42	40.8	12	11.7	4	3.9	45	43.7	
	조금 나쁜 편이다	7	35.0	5	25.0	2	10.0	6	30.0	
피부타입	건성피부	20	83.3					4	16.7	35.168** (.000)
	중성피부	30	31.6	17	17.9	6	6.3	42	44.2	
	지성피부	21	42.0	9	18.0	7	14.0	13	26.0	
	복합성피부	21	70.0	3	10.0	1	3.3	5	16.7	
신체 건강상태	매우 건강하다	4	50.0	1	12.5	2	25.0	1	12.5	29.400** (.001)
	건강하다	42	59.2	8	11.3	9	12.7	12	16.9	
	보통이다	43	39.4	16	14.7	3	2.8	47	43.1	
	나쁘다	3	27.3	4	36.4			4	36.4	
합계		92	46.2	29	14.6	14	7.0	64	32.2	

*p<.05, **p<.01

2) 치료효과 나타난 시술 회기

다음 <표23>는 메디컬 스킨케어를 받은 경험이 있는 107명을 대상으로 치료효과가 나타난 시술 회기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1회'가 59명(55.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3회' 41명(38.3%), '느끼지 못했다' 4명(3.7%), '4-6회' 3명(2.8%)순으로 나타나 대다수가 1회 시술시 효과를 느낀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서는 직업, 월평균 소득, 피부타입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1). 먼저 직업에 따라서는 사무직이나 전문직의 경우 1회 시술시 효과를 느낀 반면 주부의

경우 1회 또는 2~3회 시술시, 공무원의 경우 2~3회 시술시 효과를 느낀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고, 월평균 소득에 따라서는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1회 시술 시 효과를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부타입에 따라서는 중성이나 지성피부의 경우 1회 시술시 효과가 나타난 반면 건성이나 복합성피부의 경우 2~3회 시술시 효과를 느낀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표 23> 치료효과 나타난 시술 회기

구분		치료효과 나타난 시술 회기								χ^2 (p)
		느끼지 못했다		1회		2-3회		4-6회		
		N	%	N	%	N	%	N	%	
직업	공무원	1	16.7	2	33.3	3	50.0			25.870** (.002)
	사무직			22	73.3	8	26.7			
	전문직	2	10.0	10	50.0	5	25.0	3	15.0	
	주부	1	2.0	25	49.0	25	49.0			
월평균 소득	100-200만원	1	12.5	5	62.5	2	25.0			28.682** (.001)
	200-300만원	2	5.9	20	58.8	12	35.3			
	300-400만원			28	53.8	24	46.2			
	400만원이상	1	7.7	6	46.2	3	23.1	3	23.1	
피부 건강상태	매우 좋은 편이다			1	20.0	4	80.0			9.245 (.415)
	좋은 편이다			19	67.9	9	32.1			
	보통이다	3	4.9	33	54.1	22	36.1	3	4.9	
	조금 나쁜 편이다	1	7.7	6	46.2	6	46.2			
피부타입	건성피부			1	25.0	2	50.0	1	25.0	26.344** (.002)
	중성피부	2	3.1	39	60.0	24	36.9			
	지성피부	1	3.4	17	58.6	11	37.9			
	복합성피부	1	11.1	2	22.2	4	44.4	2	22.2	
신체 건강상태	매우 건강하다			2	50.0	2	50.0			7.748 (.560)
	건강하다	2	6.9	11	37.9	14	48.3	2	6.9	
	보통이다	2	3.0	40	60.6	23	34.8	1	1.5	
	나쁘다			6	75.0	2	25.0			
합계		4	3.7	59	55.1	41	38.3	3	2.8	

**p<.01

3) 시술 기간 중 반응

다음 <표24>는 메디컬 스킨케어를 받은 경험이 있는 107명을 대상으로 시술 기간 중 반응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예민

해지거나 붉은 자국'이 56명(52.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색소침착' 40명(37.4%), '파인 흉터나 튀어나온 흉터' 9명(8.4%), '피가 나는 상처 또는 염증반응' 2명(1.9%)순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예민해지거나 붉은 자국의 반응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서는 피부건강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5$), 다소 차이는 있으나 체질적으로 예민해지거나 붉은 자국의 반응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 시술 기간 중 반응

구분		시술 기간 중 반응								χ^2 (p)
		색소침착		파인 흉터나		피가 나는		예민해		
				튀어나온		상처 또는		지거나 붉은		
				흉터		염증반응		자국		
		N	%	N	%	N	%	N	%	
직업	공무원	3	50.0					3	50.0	8.229 (.511)
	사무직	9	30.0	4	13.3			17	56.7	
	전문직	11	55.0			1	5.0	8	40.0	
	주부	17	33.3	5	9.8	1	2.0	28	54.9	
월평균 소득	100~200만원	4	50.0	2	25.0			2	25.0	7.846 (.550)
	200~300만원	15	44.1	2	5.9	1	2.9	16	47.1	
	300~400만원	16	30.8	5	9.6	1	1.9	30	57.7	
	400만원이상	5	38.5					8	61.5	
피부 건강상태	매우 좋은 편이다	1	20.0	1	20.0	1	20.0	2	40.0	18.105* (.034)
	좋은 편이다	13	46.4					15	53.6	
	보통이다	24	39.3	7	11.5	1	1.6	29	47.5	
	조금 나쁜 편이다	2	15.4	1	7.7			10	76.9	
피부타입	건성피부	2	50.0					2	50.0	4.397 (.883)
	중성피부	26	40.0	4	6.2	2	3.1	33	50.8	
	지성피부	10	34.5	4	13.8			15	51.7	
	복합성피부	2	22.2	1	11.1			6	66.7	
신체 건강상태	매우 건강하다	1	25.0					3	75.0	9.441 (.398)
	건강하다	16	55.2			1	3.4	12	41.4	
	보통이다	21	31.8	8	12.1	1	1.5	36	54.5	
	나쁘다	2	25.0	1	12.5			5	62.5	
합계		40	37.4	9	8.4	2	1.9	56	52.3	

* $p<.05$

4) 향후 메디컬 스킨케어 이용여부

다음 <표25>는 메디컬 스킨케어를 받은 경험이 있는 107명을 대상으로

향후 메디컬 스킨케어 이용여부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경제적으로 허락되면하겠다’가 79명(73.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꼭 이용하겠다’ 17명(15.9%), ‘유행추세에 따라하겠다’ 7명(6.5%), ‘안하겠다’ 4명(3.7%)순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허락되면 이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피부 건강상태, 피부타입, 신체 건강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1$). 먼저 피부 건강상태나 피부타입에 따라서는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허락되면 이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체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매우 건강한 경우 꼭 이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건강하거나 보통, 나쁜 경우 경제적으로 허락되면 이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소 차이를 보였다.

<표 25> 향후 메디컬 스킨케어 이용여부

구분		향후 메디컬 스킨케어 이용여부								χ^2 (p)
		꼭 이용하겠다		경제적으로 허락되면		유행추세에 따라		안 하겠다		
		N	%	N	%	N	%	N	%	
직업	공무원	2	33.3	3	50.0	1	16.7			14.987 (.091)
	사무직	4	13.3	24	80.0	1	3.3	1	3.3	
	전문직	7	35.0	10	50.0	1	5.0	2	10.0	
	주부	4	7.8	42	82.4	4	7.8	1	2.0	
월평균 소득	100-200만원	2	25.0	5	62.5			1	12.5	16.295 (.061)
	200-300만원	7	20.6	24	70.6	2	5.9	1	2.9	
	300-400만원	4	7.7	44	84.6	4	7.7			
	400만원이상	4	30.8	6	46.2	1	7.7	2	15.4	
피부 건강상태	매우 좋은 편이다	1	20.0	2	40.0	1	20.0	1	20.0	19.467* (.022)
	좋은 편이다	6	21.4	16	57.1	5	17.9	1	3.6	
	보통이다	7	11.5	52	85.2	1	1.6	1	1.6	
	조금 나쁜 편이다	3	23.1	9	69.2			1	7.7	
피부타입	건성피부	1	25.0	2	50.0			1	25.0	18.513* (.030)
	중성피부	6	9.2	53	81.5	3	4.6	3	4.6	
	지성피부	6	20.7	19	65.5	4	13.8			
	복합성피부	4	44.4	5	55.6					
신체 건강상태	매우 건강하다	2	50.0			1	25.0	1	25.0	31.521** (.000)
	건강하다	8	27.6	16	55.2	4	13.8	1	3.4	
	보통이다	4	6.1	59	89.4	1	1.5	2	3.0	
	나쁘다	3	37.5	4	50.0	1	12.5			
합계		17	15.9	79	73.8	7	6.5	4	3.7	

* $p<.05$, ** $p<.01$

5) 시술도중 효과가 없을 것 같아 걱정되는 정도

다음 <표26>는 메디컬 스킨케어를 받은 경험이 있는 107명을 대상으로 시술도중 효과가 없을 것 같아 걱정되는 정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많이 걱정된다’ 3명(2.8%), ‘걱정된다’ 40명(37.4%), ‘조금 걱정된다’ 46명(43.0%), ‘전혀 걱정되지않는다’ 18명(16.8%)으로 나타나 전체 83.2%가 시술도중 효과가 없을 것 같아 걱정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서는 직업, 월평균 소득, 피부 건강상태, 신체 건강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p<.05$). 먼저 직업에 따라서는 사무직이나 전문직의 경우 상대적으로 걱정이 많이 된다고 응답하였고, 월평균 소득에 따라서는 비교적 월평균 소득이 많을수록 걱정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부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비교적 나쁜 편일수록 걱정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체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비교적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 걱정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6> 시술도중 효과가 없을 것 같아 걱정되는 정도

구분		시술도중 효과가 없을 것 같아 걱정되는 정도								χ^2 (p)
		많이 걱정된다		걱정된다		조금 걱정된다		전혀 걱정 안된다		
		N	%	N	%	N	%	N	%	
직업	공무원			2	33.3	2	33.3	2	33.3	19.590* (.021)
	사무직			13	43.3	14	46.7	3	10.0	
	전문직	3	15.0	5	25.0	6	30.0	6	30.0	
	주부			20	39.2	24	47.1	7	13.7	
월평균 소득	100-200만원			3	37.5	4	50.0	1	12.5	28.041** (.001)
	200-300만원			16	47.1	12	35.3	6	17.6	
	300-400만원			18	34.6	27	51.9	7	13.5	
	400만원이상	3	23.1	3	23.1	3	23.1	4	30.8	
피부 건강상태	매우 좋은 편이다	1	20.0	1	20.0	2	40.0	1	20.0	19.990* (.018)
	좋은 편이다			6	21.4	12	42.9	10	35.7	
	보통이다	2	3.3	25	41.0	28	45.9	6	9.8	
	조금 나쁜 편이다			8	61.5	4	30.8	1	7.7	
피부타입	건성피부			3	75.0			1	25.0	11.112 (.268)
	중성피부	2	3.1	21	32.3	33	50.8	9	13.8	
	지성피부			14	48.3	9	31.0	6	20.7	
	복합성피부	1	11.1	2	22.2	4	44.4	2	22.2	
신체 건강상태	매우 건강하다	1	25.0			1	25.0	2	50.0	27.286** (.001)
	건강하다	1	3.4	5	17.2	13	44.8	10	34.5	
	보통이다	1	1.5	30	45.5	30	45.5	5	7.6	
	나쁘다			5	62.5	2	25.0	1	12.5	
합계		3	2.8	40	37.4	46	43.0	18	16.8	

*p<.05, **p<.01

6) 메디컬 스킨케어 결과 만족도

다음 <표27>는 메디컬 스킨케어를 받은 경험이 있는 107명을 대상으로 메디컬 스킨케어 결과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매우 만족’ 12명(11.2%), ‘만족’ 52명(48.6%), ‘보통’ 42명(39.3%), ‘불만족’ 1명(0.9%)으로 나타나 전체 59.8%가 메디컬 스킨케어 결과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서는 피부 건강상태, 신체 건강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1), 비교적 피부상태는 나쁜 편일수록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건강상태는 좋은 편일수록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표 27> 메디컬 스킨케어 결과 만족도

구분		메디컬 스킨케어 결과 만족도								χ^2 (p)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N	%	N	%	N	%	N	%	
직업	공무원	2	33.3	3	50.0	1	16.7			15.505 (.078)
	사무직	3	10.0	15	50.0	12	40.0			
	전문직	5	25.0	6	30.0	8	40.0	1	5.0	
	주부	2	3.9	28	54.9	21	41.2			
월평균 소득	100~200만원	2	25.0	3	37.5	3	37.5			12.526 (.185)
	200~300만원	3	8.8	19	55.9	12	35.3			
	300~400만원	4	7.7	25	48.1	23	44.2			
	400만원이상	3	23.1	5	38.5	4	30.8	1	7.7	
피부 건강상태	매우 좋은 편이다	1	20.0	1	20.0	3	60.0			22.978** (.006)
	좋은 편이다	9	32.1	14	50.0	5	17.9			
	보통이다	1	1.6	30	49.2	29	47.5	1	1.6	
	조금 나쁜 편이다	1	7.7	7	53.8	5	38.5			
피부타입	건성피부			2	50.0	2	50.0			9.949 (.355)
	중성피부	7	10.8	27	41.5	30	46.2	1	1.5	
	지성피부	4	13.8	20	69.0	5	17.2			
	복합성피부	1	11.1	3	33.3	5	55.6			
신체 건강상태	매우 건강하다	3	75.0			1	25.0			29.934** (.000)
	건강하다	7	24.1	15	51.7	7	24.1			
	보통이다	1	1.5	33	50.0	31	47.0	1	1.5	
	나쁘다	1	12.5	4	50.0	3	37.5			
합계		12	11.2	52	48.6	42	39.3	1	.9	

**p<.01

7) 주변 사람들에게 메디컬 스킨케어 시술 권하는 정도

다음 <표28>는 메디컬 스킨케어를 받은 경험이 있는 107명을 대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메디컬 스킨케어 시술 권하는 정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필요한 사람에게만 권하겠다’가 88명(82.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꼭 권하겠다’ 13명(12.1%), ‘안 권한다’ 4명(3.7%), ‘신경 안쓴다’ 2명(1.9%)순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만 권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서는 직업, 월평균 소득, 피부 건강상태, 신체 건강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p<.05),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다수가 필요한 사람에게만 권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 주변 사람들에게 메디컬 스킨케어 시술 권하는 정도

구분		주변 사람들에게 메디컬 스킨케어 시술 권하는 정도								χ^2 (p)
		꼭권하겠다		필요한 사람에게만 권하겠다		안권한다		신경안쓴다		
				N	%					
직업	공무원	1	16.7	4	66.7			1	16.7	19.685* (.020)
	사무직	3	10.0	26	86.7	1	3.3			
	전문직	6	30.0	12	60.0	2	10.0			
	주부	3	5.9	46	90.2	1	2.0	1	2.0	
월평균 소득	100-200만원	3	37.5	4	50.0			1	12.5	20.765* (.014)
	200-300만원	3	8.8	28	82.4	3	8.8			
	300-400만원	4	7.7	47	90.4	1	1.9			
	400만원이상	3	23.1	9	69.2			1	7.7	
피부 건강상태	매우 좋은 편이다			5	100.0					24.539** (.004)
	좋은 편이다	9	32.1	17	60.7	1	3.6	1	3.6	
	보통이다	1	1.6	57	93.4	3	4.9			
	조금 나쁜 편이다	3	23.1	9	69.2			1	7.7	
피부타입	건성피부			3	75.0	1	25.0			12.698 (.177)
	중성피부	8	12.3	55	84.6	2	3.1			
	지성피부	3	10.3	24	82.8	1	3.4	1	3.4	
	복합성피부	2	22.2	6	66.7			1	11.1	
신체 건강상태	매우 건강하다	1	25.0	2	50.0			1	25.0	33.941** (.000)
	건강하다	7	24.1	19	65.5	3	10.3			
	보통이다	3	4.5	62	93.9	1	1.5			
	나쁘다	2	25.0	5	62.5			1	12.5	
합계		13	12.1	88	82.2	4	3.7	2	1.9	

*p<.05, **p<.01

8) 메디컬 스킨케어 시술비용 대비 효과의 만족도

다음 <표29>는 메디컬 스킨케어를 받은 경험이 있는 107명을 대상으로 메디컬 스킨케어 시술비용 대비 효과의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비용은 비싸지만 효과는 만족’이 68명(63.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비용은 싸지만 효과는 불만족’ 14명(13.1%), ‘비용도 싸고 효과도 만족’ 13명(12.1%), ‘비용도 비싸고 효과도 불만족’ 12명(11.2%)순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비용은 비싸지만 효과는 만족스러운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서는 월평균 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5), 400만원 미만의 경우 비용은

비싸지만 효과는 만족스러워 하는 반면 400만원이상의 경우 비용도 싸고 효과도 만족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 메디컬 스킨케어 시술비용 대비 효과의 만족도

구분		메디컬 스킨케어 시술비용 대비 효과의 만족도								χ^2 (p)
		비용도 싸고 효과도 만족스럽다		비용은 비싸지만 효과는 만족스럽다		비용도 비싸 고 효과도 불만족 스럽다		비용은 싸지만 효과는 불만족스럽다		
		N	%	N	%	N	%	N	%	
직업	공무원	3	50.0	2	33.3	1	16.7			16.620 (.055)
	사무직	2	6.7	18	60.0	4	13.3	6	20.0	
	전문직	5	25.0	12	60.0	1	5.0	2	10.0	
	주부	3	5.9	36	70.6	6	11.8	6	11.8	
월평균 소득	100-200만원			7	87.5			1	12.5	20.225* (.017)
	200-300만원	3	8.8	21	61.8	6	17.6	4	11.8	
	300-400만원	4	7.7	36	69.2	5	9.6	7	13.5	
	400만원이상	6	46.2	4	30.8	1	7.7	2	15.4	
피부 건강상태	매우 좋은 편이다	1	20.0	3	60.0			1	20.0	6.890 (.649)
	좋은 편이다	4	14.3	20	71.4	1	3.6	3	10.7	
	보통이다	5	8.2	38	62.3	10	16.4	8	13.1	
	조금 나쁜 편이다	3	23.1	7	53.8	1	7.7	2	15.4	
피부타입	건성피부	1	25.0	1	25.0	2	50.0			12.091 (.208)
	중성피부	7	10.8	41	63.1	6	9.2	11	16.9	
	지성피부	3	10.3	19	65.5	4	13.8	3	10.3	
	복합성피부	2	22.2	7	77.8					
신체 건강상태	매우 건강하다	1	25.0	2	50.0			1	25.0	14.313 (.112)
	건강하다	6	20.7	19	65.5	2	6.9	2	6.9	
	보통이다	3	4.5	43	65.2	9	13.6	11	16.7	
	나쁘다	3	37.5	4	50.0	1	12.5			
합계		13	12.1	68	63.6	12	11.2	14	13.1	

* p<.05

VI. 고 찰

피부관리 행태에 관련한 선행논문 연구 고찰과 비교하였으며,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한 각각의 유형별 원인과 효과, 결과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결론이 도출 되었다.

첫째, 미백관리를 위한 장소의 선택은 대체적으로 자신의 집에서 미백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두가지 이상 혼용 및 그 외 방법’ 72명(36.2%)이 미백관리행태로 나타나 앞으로도 미백을 위한 화장품업체 및 관리샵의 꾸준한 성장은 예상된다. 장소 선택 이유로는 ‘비용이 저렴해서’가 111명(55.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부분에서는 선행논문(임수진,2008: p.108)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기에 본 연구자는 미백관리를 위한 화장품 및 관리샵 등에서 가격의 다양화와 합리적인 가격설정을 해야 하는 것이 소비자 및 업체를 위한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되어진다.

둘째, 메디칼 스킨케어 이용 경험에 있는 107명을 대상으로 ‘경제적으로 허락되면 하겠다’가 79명(73.8%)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메디칼 스킨케어 또한 가격에 대한 합리성을 원하는 것으로써 시술에 대한 적합한 가격설정이 우선시 되어야 하겠다. 또한 메디칼 스킨케어 선택 원인으로서는 문제 피부를 위해 의료가기로 치료한다는점과 의사의 전문성, 병원의 신뢰성으로 찾게된다(최은정,2005: p.68). 메디칼 스킨케어 시술 대비 효과 만족도 결과는 ‘비용은 비싸지만 효과는 만족’이 68명(63.6%)가장 높게 나타남에 따라 문제피부의 경우 악화되거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메디칼 스킨케어를 해야하는 것이 합리적 방법으로 생각되어진다.

셋째, 피부관리실 지속의향에 관한 결과로는 경제력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나타나 앞으로의 총체적 경제상황에 따른 피부미용 관련산업이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하며 각개인의 경제상황에 따른 미백관리행태도 다양하리라 생각되어진다.

선행 논문 (정은진, 2006: p.2)에서는 대체로 피부 건강 상태와 신체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미백관리 효과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 관리실에서는 경제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 중에는 과학적이고 신뢰를 줄 수 있는 피부관리사의 전문성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피부건강과 신체건강에 대한 총체적인 지식 겸비가 중요하다고 생각 되어진다.



V. 결 론 및 제언

본 연구는 40~50대 여성 미백관리 행태에 관한 만족도 실태를 알아보고 유형별 선택원인과 효과, 만족도가 어떠한지 비교 분석하여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2009년 10월 15일부터~10월 30일까지 서울시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40~50대 여성 19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하여 직업으로는 ‘주부’ 92명 (42.2%), ‘전문직’ 50명(25.1%), ‘사무직’ 46명(23.1%), ‘공무원’ 11명 (5.5%) 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반 피부관리실 이용정도를 알아보고 피부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매우 좋은편’ 인 경우는 피부관리실을 4년이상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건강한 상태일수록 미백관리 이용기간도 긴 것으로 나타나 다소 차이를 보였다. 피부관리는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매우 좋은 피부’는 오랫동안 지속적인 관리를 받아야 안색이 맑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미백화장품과 같이 병행할 때 좋은 결과가 나왔다.

셋째, 미백화장품을 사용하는 177명을 대상으로 만족도에 대한 결과로는 ‘매우만족’ 11명(6.2%), ‘만족’ 65명(36.7%), ‘보통이다’ 98명(55.4%), ‘불만족’ 3명(1.7%)으로 나타나 전체 42.9%가 미백화장품에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메디컬스킨케어 이용 결과 만족도는 ‘매우만족’ 12명(11.2%) ‘만족’ 52명(48.6%), ‘보통’ 42명(39.3%), ‘불만족’ 1명(0.9%)으로 전체 59.8% 결과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교적 피부상태는 나쁜

편일수록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건강상태가 좋은편 일수록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향후에도 메디컬 이용여부’에서는 ‘경제적으로 허락하면 하겠다’ 79명 (73.8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피부관리실은 관리사의 전문적인 지식과 적절한 관리비용을 책정하여 병원과 차별화하는 안락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둘째, 미백화장품의 브랜드나 제품회사의 이름 보다 주요성분이나 원료 및 효과 등의 중요성을 소비자가 인지하고 구매 할 수 있는 방안을 판매자는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메디컬 스킨케어를 이용하려는 소비자는 치료를 위한 목적이 확실한가를 판단하려면 충분히 상담을 통하고, 또한 메디컬 스킨케어에서는 시술에 따른 부작용 등의 설명과 합리적인 가격, 시술의 이해를 위한 설명 등을 잘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계속하여 세분화 전문화되는 거대한 피부미용 산업에서의 향후 연구에서는 폭넓은 연령대 및 남성 등의 연구대상자와 수도권 외의 지역 등도 포함하여 피부미백을 위한 다양한 행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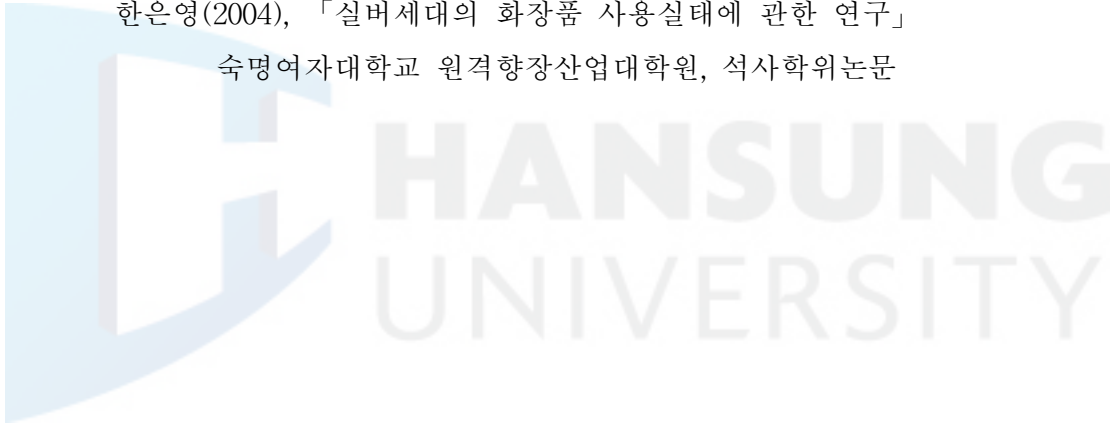
- 김기연(2001), 『피부과학』, 도서출판 : 수문사,
김명숙(2008), 『피부미용학』, 도서출판 : 현문사,
김문주(2003), 『피부관리학』, 도서출판 : 정담미디어
김수연(2008), 『뷰티테라피Ⅲ』, 도서출판 :영문출판사
김영미(2005), 『메디칼스킨케어 I』, 도서출판: 임송
김주덕(2004), 『신화장품학』 제2판, 도서출판: 동화기술,
김희진(2009), 『임상피부미용』, 도서출판: 청구문화사
강원형(2006), 『피부질환아틀라스 제2판』
 도서출판: 한미의학
강경화(1998), 『메이크업총론』, 도서출판: 서울 APC
강여중(2008), 『화장품학』, 도서출판: 아트하우스
고영수(2002), 『화장품학』, 도서출판: 화장품신문사
고영수(2004), 『신화장품학』, 도서출판: 동화기술
대한피부과학회(2008), 『피부과학』, 도서출판: 여문각
문종원(2009), 『정신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시그마프레스
이상주(2009), 『메디칼스킨케어』, 도서출판: 여문각
이영아(2009), 『미용피부과학』, 도서출판: 신정,
이연희(2008), 『안면피부관리』, 도서출판: 광문각,
이수근(2007), 『피부이야기』, 도서출판: 북갤러리
이수근(2005), 『필러바이블』, 도서출판: 의학문화사
이승현(2004), 『피부장벽』, 도서출판: 여문각,
정종영(2007), 『아틀라스 필링메뉴얼』 도서출판: 엠디월드
정종영(2006), 『아틀라스 피부관리학』
 도서출판: 대한일차진료학회
전제균(2003), 『마사지총론』, 도서출판: 정담미디어

하병조(1999), 『화장품학』, 도서출판: 수문사
한영숙(2008), 『피부미용학』, 도서출판: 청구문화사

학위논문

김지영(2008), 「사후관리에 의한 스킨케어에서 필링의 효과와 만족도 조사」, 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미(2006), 「메디칼스킨케어에 대한 인식과 지불의사 (wtp)가격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지영(2005), 「수입화장품의 마케팅 전략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현숙(2008), 「미백화장품 소비자의 브랜드 재구매 의도에 관한 연구」,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뷰티산업학과, 박사학위논문
구재희(2003), 「여성의 피부관리 실태와 관련요인」
경상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영숙(2008), 「아로마테라피를 적용한 두피마사지가 여대생의 스트레스 완화에 미치는 효과」, 서경대학교 미용예술학과
석사학위논문
오영미(2003), 「자외선 차단제 및 미백화장품의 소비자 선호도조사」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수진(2008), 「여성들의 피부미백에 대한 인식과 미백관리 행태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예춘정(2005), 「피부미용실 고객이 불만족이 소비자 불평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구한의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종신(2006), 「직장여성의 피부관리 행태와 관련 요인」
원광대학교 보건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동초(2005), 「대학병원간호사의 피부관리 실태와 관련요인」
원광대학교 보건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성내(2002), 「peeling과 초음파를 이용한 피부 미용학적 여드름
관리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 윤덕인(2008), 「야간교대 근무가 피부에 미치는 영향과 관리법」
중앙대 의약식품대학원 향장미용학, 석사학위논문
- 정은진(2006), 「메디칼에스테틱의 현황과 고객만족도 및 개선방안
연구」, 중앙대 의약식품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은정(2005), 「메디칼 스킨케어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순득(2008), 「미용요법의 중년여성의 우울증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서경대학교 대학원 미용예술학과
박사학위논문
- 한은영(2004), 「실버세대의 화장품 사용실태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원격향장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간행물 및 인터넷자료

간행물

- 김광옥(1998), 「여성들의 자아존중감과 피부관리 습관에 따른 피부 건강상태」, 『한국미용학회지 제4권 제1호』, 한국미용학회
- 윤준혁(1994), 「절제표피를 이용한 표피 및 각질층 지질분석」 『대한피부과학회지 제32권 제5호』, 대한피부과학회
- 곽형심(1997), 「여성의 기호성과 피부관리 습관에 따른 피부상태」 『한국미용학회지 제3권 제1호』, 한국미용학회
- 김금란(2009), 「피부 유.수분 상태가 피부 착색지수에 미치는 영향」 『대한피부미용학회지 제7권 제1호』, 대한피부미용학회
- 배근혜(1997), 「피부의 탄력,유분,수분지수와 생활습관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대한피부미용학회지 제4권 제2호』 대한피부미용학회
- 최은영(1997), 「피부측정기구를 이용한 피부표면 상태의 비교측정」 『대한피부미용학회지 제4권 제2호』, 대한피부미용학회

인터넷자료

- <http://blog.naver.com/hdbw2/120004185311>
- <http://www.cmn.co.kr/index.php>
- <http://www.beautynury.com/banner2.asp>
- <http://www.cnpskin.co.kr/clinic/clinic-gallery.php>
- <http://www..co.kr/joynews.inews.24.com/php/news-view.php>
- <http://www.doctor2.ezday.co.kr/consult-list>

부 록

-설문지-

『40~50대 여성들의 미백관리 행태에 관한 만족도 실태조사 연구』
- 서울 강북 지역 중심으로 -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40~50대 여성들의 미백관리 행태에 관한 만족도 실태 조사 연구를 위한 설문지입니다.

이 설문은 무기명으로 실시되며, 조사 결과는 데이터 처리되어 본 연구의 목적 이외는 공개하거나 배포하지 않으며 학문적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에 참여하여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09년 09월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뷰티 에스테틱 전공

지도교수 : 김 민 정

연구자 : 황 정 미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항목에 V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공무원 ② 사무직 ③ 전문직 ④ 주부
2. 귀하의 가정의 월 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① 100~200만원 ② 200~300만원 ③ 300~400만원 ④ 400만원이상
3. 귀하의 피부 건강상태는 어떤 편입니까?
① 매우 좋은 편이다 ② 좋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나쁜 편이다
4. 귀하의 피부타입은 어디에 속합니까?
① 건성피부 ② 중성피부 ③ 지성피부 ④ 복합성피부
5. 귀하의 신체 건강상태는 어떤 편입니까?
① 매우 건강하다 ② 건강하다 ③ 보통이다 ④ 나쁘다
6. 귀하는 건강보조 식품을 몇 가지 드십니까?
① 안먹는다 ② 1~2가지 ③ 3~4가지 ④ 5가지 이상
7. 하얀 피부가 되려고 운동하고 물을 마시고 잠도 잘 주무십니까?
① 모두 잘한다 ② 두가지만 한다 ③ 한가지만 한다 ④ 신경 안쓴다
8. 피부를 위해 규칙적인 생활을 하십니까?
① 매우 잘한다 ② 잘한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못하다
9. 귀하는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① 매우 많이 받는다 ② 많이 받는다 ③ 보통이다 ④ 거의 안받는다
10. 자외선 차단으로 모자나 양산을 잘 사용합니까?
① 둘 다 사용한다 ② 하나만 사용한다
③ 둘 중 아무거나 가끔 사용한다 ④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11. 귀하는 음주 흡연을 하십니까?
① 둘 다 한다 ② 하나만 한다 ③ 둘 중 아무거나 가끔 한다
④ 둘 다 전혀 안한다

미백을 위한 일반 피부관리실 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 항목에 V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2. 귀하는 얼마나 미백관리를 해오셨습니까?
 ① 1년 미만 ② 2년 정도 ③ 3년 정도 ④ 4년 이상
13. 귀하는 어디서 미백관리를 하십니까?
 ① 일반 피부관리실 ② 피부과 피부 관리실
 ③ 자신의 집에서 미백화장품 사용
 ④ 기타 (두가지 이상 혼용 및 그 외 방법)
14. 13번 문항에서 미백관리 장소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효과가 좋아서 ② 주변의 권유로 ③ 안락한 분위기
 ④ 비용이 저렴해서
15. 귀하께서 관리를 위해 주로 사용하는 것은 ?
 ① 미백화장품 라인 ② 각질제거 화장품 ③ 자외선 차단 제품
 ④ 기기를 이용한 스킨링
16. 귀하께서 이용하시는 미백관리 효과에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17. 귀하께서 현재 이용하는 미백관리를 계속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① 현재 것만 하겠다 ② 앞으로 하지 않겠다
 ③ 경제력에 따라 바뀔 수 있다 ④ 유행추세에 맞추어 할 것이다
18. 귀하께서는 향후 미백관리를 위해 어느 곳을 이용하시고 싶습니까?
 ① 일반 피부관리실 ② 피부과 피부관리실
 ③ 자신의 집에서 미백화장품 사용
 ④ 기타 (두가지 이상 혼용 및 그 외 방법)
19. 귀하께서는 피부관리실에서 관리받는 횟수는 몇회 되십니까?
 ① 없다 ② 주1회 ③ 주 2회 이상 ④ 월 2-3회
20. 귀하께서는 미백관리를 위해 한 달에 얼마 정도 비용을 지출하십니까?
 ① 20만원 미만 ② 40만원 미만 ③ 60만원 미만 ④ 60만원 이상
21. 피부관리실에서 받아본 경험이 거의 없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가격이 비싸서 ② 거리가 멀거나 시간이 없어서
 ③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④ 피부관리사의 능력부족 (서비스 부족, 전문성 부족)

귀하의 미백화장품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해당 항목에 V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2. 귀하께서 현재 어떤 종류의 기초 화장품을 사용합니까
 ① 오일프리 제품 ② 유분성이 많은 제품
 ③ 정상용 피부에 맞는 제품 ④ 복합성 피부에 맞는 제품
23. 귀하께서는 어떤 화장품을 사용합니까?
 ① 국산화장품 ② 한방화장품 ③ 천연화장품 ④ 외국화장품
24. 귀하는 미백기능성 화장품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사용하셨습니까?
 ① 사용한적 없다 ② 2년 미만 ③ 4년 미만 ④ 4년 이상
25. 귀하께서 경험하신 미백화장품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이다 ④ 불만족
26. 귀하가 주로 사용하는 미백라인은 무엇입니까?
 ① 미백 스킨로션 ② 미백 에센스 ③ 미백 영양앰플 ④ 미백 팩
27. 귀하는 자외선차단제를 쓰십니까?
 ① 항상쓴다 ② 외출시에 쓴다 ③ 여름에만 쓴다 ④ 운동 할 때 쓴다
28. 귀하는 BB크림을 사용하십니까?
 ① 항상 사용한다 ② 화운데손 대응으로 외출시에 사용한다
 ③ 실외운동 할 때 사용한다 ④ 햇볕이 강할 때 사용한다
29. 미백화장품 구매 시 중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① 주요원료 및 성분 ② 제조회사 및 브랜드
 ③ 제품 효능효과 ④ 가격
30. 화장품 라인 중에서 추가적으로 사용하고 싶은 제품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① 수분라인 ② 영양라인 ③ 미백라인 ④ 탄력라인

귀하의 메디칼 스킨케어 이용경험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 항목에 V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1. 귀하는 어떤 시술을 받으셨습니까?

- ① 받은적 없다 ② 화학 약품을 이용한 박피술 (TCA, 필링등)
③ 주사요법 (메조테라피 ,MTS)
④ 기기를 이용한 박피술 (프락셀 레이저, IPL)

- 메디칼스킨케어를이용하고경험한사람에만하여 V표 해주세요. -

32. 몇 회 시술 후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느꼈습니까?

- ① 느끼지 못했다 ② 1회 ③ 2~3회 ④ 4~6회

33. 시술 기간 중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 ① 색소침착 ② 파인 흉터나 튀어나온흉터
③ 피가나는 상처 또는 염증반응 ④ 예민해지거나 붉은 자국

34. 향후에도 메디컬 스킨케어를 이용하겠습니까?

- ① 꼭이용하겠다 ② 경제적으로 허락되면 하겠다
③ 유행 추세에따라 하겠다 ④ 안하겠다

35. 시술도중 효과가 없을 것 같아 걱정이 됩니까?

- ① 많이 걱정된다 ② 걱정된다
③ 조금 걱정된다 ④ 전혀 걱정 안된다

36. 메디컬 스킨케어 결과에 대해서 만족합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불만족이다

37. 주변 사람들에게 메디컬 스킨케어 시술을 권하겠습니까?

- ① 꼭 권하겠다 ② 필요한 사람에게만 권하겠다
③ 안 권한다 ④ 신경 안 쓴다

38. 메디컬 스킨케어 시술 비용에 비해 결과는 만족스럽습니까?

- ① 비용도 싸고 효과도 만족스럽다
② 비용은 비싸지만 효과는 만족스럽다
③ 비용도 비싸고 효과도 불만족스럽다
④ 비용은 싸지만 효과는 불만족스럽다

Abstract

A study on satisfaction of female in their 40s and 50s with whitening care behavior.

- centering around seoul gangbuk area -

Hwang, Jung mi

Major in Beauty Esthetic

Department of Beauty Art & Design

Graduate School of Arts

Hansung University

This is "the study on satisfaction of female in their 40~50s with whitening care behaviour" for which the pattern of behaviour was divided into 3 such as using dermatology at the hospital, whitening cosmetic or skin care shop.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ut a comparative analysis and then hold out the causes and effect, satisfaction from 3 pattern they have chosen, 199 female in Seoul Gangbuk area were selected for a questionnaire. From 2009 October 15-October 30 covering 15 days data were collected and the collected data went through data coding and cleaning process and then analyzed with SPSS. 12.0(statistical package). The summarized analysis results are as below.

First, the results of frequency analysis conducted to find out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ose surveyed showed the followings. In regard to their occupation, housewives 92(42.2%), professional

50(25.1%), office job 46(23.1%), public official 11(5.5%), and in skin type, normal skin 95(47.7%), oily skin 50(25.1%), combination skin 30(15.1 %), dry skin 24(12.1%)

Second, skin health state was classified along with the investigation of their uses of skin care shop for skin whitening which showed the results that the female with very good skin have been used the skin care shop longer than 4 years, and with a little bad skin used about 3 years, and when skin types were classified, they showed difference such as women with normal skin used skin care shop about 2 years, and with dry, combination skins used less than 1 year. When physical health states were classified, women with comparatively health state showed their skin care term longer. As the results show, every skin require continual care to get effect for healthy state

Third, the cross tabulation analysis to find out if differences exist to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rveyed for use pattern of whitening cosmetic was carried out for the 177 subjects and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of their satisfaction level, which showed their comparatively satisfying level such as 'very satisfied' 11(6.2%). satisfied 65(36.7%), 'just so-so' 98(55.4%), dissatisfied 3(1.7%). When occupations were classified, the public official and office jobs showed higher satisfaction, and skin health state, physical health state were classified, the results were that when they have healthier state, their satisfaction level was higher.

Fourth, the satisfaction level of 107 subjects with the use of medical skin care showed the results like 'very satisfied' 12(11.2%), 'satisfied 52(48.6 %), normal 42(39.3%), 'dissatisfied' 1(0.9%) showing 59.8% of the whole subjects was satisfied with the results and the person with the worse skin satisfied more with the result while the

person with the better health state satisfied more with the result. Besides, 79 subjects(73.8) answered 'they would do if they could afford' to the question of hereafter use of medical skin care, which was the highest percentage. And preliminary knowledge of medical skin care use seems to be necessary for an effective result.

